

Sports  
Seoul  
Culture

스포츠 워킹 투어

걸어서 만나는 서울의 농구  
이화학당, 장충체육관, 그리고 잠실학생체육관

스포츠 웨이브

장애·비장애 통합체육, 한 걸음을 더한다

# 서울 스포츠

No. 380  
2022 11·12





# 서울 스포츠

Bimonthly Magazine No.380  
11 · 12 2022

**발행일** 2022년 11월 1일  
**발행인** 박원하 서울특별시체육회장  
**편집인** 임흥준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  
**편집위원장** 황선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편집위원** 정준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정용철 서강대학교 교수, 정진욱 동국대학교 교수  
**편집** 시민홍보팀 운영하, 이해웅  
**등록번호** 서울 라 4818  
**발행처** 서울특별시체육회 (우)02119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82(상봉동)  
**웹진** news.seoulsports.or.kr  
**전화** 02-490-2700  
**디자인·제작** 동아이앤디

본지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으로 제작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 Contents

### 04 스포츠 워킹 투어

걸어서 만나는 서울의 농구  
이화학당, 장충체육관,  
그리고 잠실학생체육관

### 12 스포츠 웨이브

장애·비장애 통합체육, 한 걸음을 더한다

- 1 나에게서 당연한 이것, 누군가에게는 절실하고 먼 그것!
- 2 해외에서는 낯설지 않은 통합체육 문화!
- 3 통합체육 정책이 나아갈 방향

### 22 학교체육을 부탁해

우리 모두 잘할 수 있어!  
진짜 체육교육 전문가 되기

### 26 공공스포츠클럽 탐방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광진구스포츠클럽

### 30 스포츠 業UP

대학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홍보마케팅팀 강병무 주임&  
기획총괄팀 이정은 주임

### 32 스포츠 데이터댐

인공지능 기반  
스포츠 중계방송 서비스의 등장과 발전

### 36 스포츠 시사 읽기

프로구단, 지역사회로 더 들어가야

### 40 남북 단일팀 역사 돌아보기

1991년 남북 단일팀 성사기  
남북 최초의 단일팀 실현

### 44 이것도 스포츠!

다 같이 차고 달리자, 킥런볼!

### 46 건강팩트 체크!

운동 중 발생한 급성 손상,  
어떻게 대처할까?

### 48 서울시청 여자축구팀 서포터즈 인터뷰

아마조네스의 12번째 선수를 소개합니다

### 52 아무튼 스포츠

세상을 바꾸는 '착한 스포츠'

### 54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다시 보기

3년 만에 돌아온  
진짜 'National Sports Festival'

### 58 SSC 뉴스+SSAD 뉴스

### 63 스포츠 모의고사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올해,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마지막 승부를 향해  
여러분의 3점 슈트를  
지금 바로 던져보세요!

**3점 슈트! GO!!**





## 걸어서 만나는 서울의 농구

이화학당, 장충체육관, 그리고 잠실학생체육관

전문 농구는 YMCA 초대 총무 미국인 필립 질레트에 의해 1907년 국내에 들어왔다. 이후 1916년 YMCA 총무 미국인 선교사 반하트에 의해 본격적으로 농구의 지도와 보급이 이뤄졌다. 현재 농구는 프로스포츠 종목이 됐으며 겨울스포츠의 인기 종목이 되었다. 동시에 일상에서 국민이 쉽게 즐기는 생활 농구의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농구의 역사를 찾아 길을 걷다 보면 어떤 한 장소에 도달하게 된다. 그 장소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곳에 변함없이 존재한다.



COURSE 1

1· 이화여자고등학교100주년기념관 - 2· 고종의 길



Spot 1\* 이화여자고등학교100주년기념관

현재 이화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외국어 고등학교가 자리한 곳은 이화여자대학교와 함께 이들의 전신인 이화학당의 터이기도 하다. 1911년, 이곳에서 여자 농구가 시작되었으며, 국내 최초로 이화여자대학교에 체육학과가 개설됐다. 지난 2004년 준공된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은 뮤지컬, 콘서트 등 다채로운 공연과 교육 행사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 위치 중구 정동길 26

Spot 2\* 고종의 길

1896년 아관파천 당시 고종이 일제의 감시를 피해 경복궁을 떠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피난길로, 덕수궁 돌담길에서 정동공원과 러시아 공사관까지 이어지는 총 120m의 길이다. 고종의 길과 맞붙어 있는 덕수궁 선원전에 있는 출입문을 지나 고종의 길을 따라 걸으면 구 러시아 공사관(현 정동공원)이 나온다.

- 위치 중구 정동길
- 운영 시간 화~일요일 9:00~18:00(입장 마감 17:30)
- \*동절기 9:00~17:30(입장 마감 17:00)



이화학당, 국내 여자 농구의 효시

덕수궁 옆 정동길을 따라 이화여자대학교(신촌)의 전신인 이화학당 자리에 가보자. 지금은 이화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는 이화학당의 과거는 어땠을까. 1886년 설립된 이화학당은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 기관이자 후에 이화여자대학교가 되어 처음으로 체육학과를 설립한 곳이다. 1911년, 이화학당의 농구 수업으로 한국 여자 농구가 시작됐다. 1925년 1월 30~31일에 이화학당 여자 농구가 교내 경기 형식으로 일반인에게 처음 공개됐다. 대회 첫날에 미미



창설 당시의 이화학당 ©동아일보DB



이화학당에서 시작한 여자 농구를 발판 삼아 우리나라 여자 농구는 1967년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동아일보DB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고종의 길 방향으로 걸으면 시민들에게 심터가 되어주는 정동공원이 나온다

하던 반응은 둘째 날 성황을 이뤘다. 이화학당에 대학 과정 인가가 나면서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인 이화여자전문학교가 만들어졌다. 이때 농구부가 구성돼 최초의 대학 농구가 출범했다. 같은 해 2월, 이화여자전문학교가 서양 여자팀과의 경기에서 10대 1로 승리하며 뜨거운 반응을 모았다. 여자농구대회를 개최할 때 재학생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모여 농구를 관람했다. 마땅한 놀거리와 볼거리가 부족했던 시절, 이화학당에서 벌이는 농구는 모두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 5대5 경기는 보는 사람도 긴장하게 했다. 이기고 지는 과정이 반복되고,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구경꾼들은 가슴 졸이

며 경기에 집중했다. 자신의 모교가 승리하기를 바라며 열띤 응원도 하고, 선수들은 학교를 대표하는 스타가 됐다. 사람들은 그들이 던지는 슛 하나에 감동을 얻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했다. 1925년 조선빠스켓볼협회가 조직되고 제1회 전조선 농구대회가 1925년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정동에 있는 제일여자고등학교 농구장에서 열리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여자 농구가 시작되고 발전해 1984년 LA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다. 한국 여자 농구의 역사를 가진 정동 이화학당을 방문해 옛날 우리 조상들이 운동장에서 농구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때 흘렸던 땀방울의 흔적을 찾아보자.





장충체육관은 각종 농구대회가 치러지는 주요 경기장으로 자리 잡았다 ©동아일보DB



**장충체육관, 남녀 농구의 요람**

정동길을 빠져나와 종로를 건다 보면 동대문을 지나 국내 최초의 실내체육관인 장충체육관을 만날 수 있다. 장충체육관은 6.25전쟁 이후 필리핀의 원조로 건설됐다는 소문도 있지만 사실 한국인 건축가와 국내 기술로 건설한 체육관이다. 장충체육관 개관 이전, 농구는 서울 장충동에 있었던 육군체육관과 서울운동장 정구코트에서 주로 경기를 했다. 장충체육관은 당시 정부가 근대적인 체육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육군체육관을 근대식 체육관으로 개조하여 만든 체육관이다. 장충체육관은 국내외 큰 스포츠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장충체육관 개관 전에는 국제 농구대회 및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체육관이 없었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력이 체력이라 할 만큼 스포츠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근대 스포츠 시설이 필요했다. 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에 있었던 육군체육관을

장충체육관으로 개조하게 된 것이다. 장충체육관에서는 농구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내의 스포츠가 열렸다. 대표적으로 국내 최초의 프로복싱 챔피언 김기수가 탄생하였고, 김일의 박치기에 국민을 열광하게 한 곳이다. 장충체육관은 1963년 2월 1일에 준공했다. 관중석을



1963 장충체육관 개관식 ©서울기록원



**COURSE 2**

**3· 장충체육관 - 4· 서울신라호텔 야외조각공원**

**Spot 3\* 장충체육관**  
육군체육관으로 사용하던 것을 본격적인 경기장으로 개보수해 1963년 2월 개관한 국내 최초 돔 실내 경기장이다. 장충체육관 개장은 실내 스포츠의 발전을 이끌었다. 농구의 메카로 출발했지만 종목 구분을 떠나 레슬링, 복싱, 씨름, 배구 등 국내 실내 스포츠의 성지로 이름을 떨쳤다. 현재는 프로배구단인 우리카드팀과 GS칼텍스팀의 홈구장이다.  
• 위치 중구 동호로 241

**Spot 4\* 서울신라호텔 야외조각공원**  
아름다운 경관과 맑은 공기가 가득한 휴식 장소로, 서울 도심 속에서 여유롭고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4만㎡의 녹지대를 따라 조성된 1.6km의 산책길을 따라 펼쳐지는 서울성곽길을 걸어보면 옛 숨결도 느낄 수 있다.  
• 위치 중구 동호로 249  
• 운영 시간 06:00~22:00 (\*무료 개방)

약 8,000개 마련하고 최첨단 전광판과 돔을 설치했다. 장충체육관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1963년 2월 박정희 장군배 쟁탈 동남아 여자농구대회가 개최됐다. 상업은행팀과 한국은행팀이 한국을 대표해 참가했다. 두 팀은 1962년 11월에 열린 국내선수권대회 우승팀과 준우승팀이다. 일본은 니치보팀, 대만은 순덕팀이 참가했다. 일본의 니치보팀은 오자키 감독이 조력한 일본 최고의 실업팀이었다. 경기 방식은 4개 팀이 더블 리그, 성적순으로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을 사용했다. 경기는 1차 리그, 2차 리

그로 나누어 진행됐다. 일본 니치보팀과 상업은행팀이 결승전에서 붙게 됐다. 전반전은 35대23으로 끝났고, 후반전에서 결국 73대63으로 상업은행이 일본 니치보팀을 상대로 우승했다. 경기가 끝나고 박신자 선수는 대통령과 두 번 손을 잡았다. 한 번은 경기장에서, 또 한 번은 청와대 만찬장이었다. 장충체육관은 1980년대까지 농구를 비롯한 실내 스포츠의 총 본산지라고 할 수 있다. 박신자, 박찬숙, 신동파 모두가 장충체육관이라는 공간에서 배출되었으며 남녀 농구의 요람이며 농구 붐을 가져온 장소다.





COURSE 3

5. 잠실학생체육관



**Spot 5\* 잠실학생체육관**  
 정식 명칭은 '잠실종합운동장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생체육관'이다.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과 이어져 있는 이곳은 프로농구팀인 SK 나이츠의 홈구장으로 각종 프로농구 경기가 열린다. 잠실종합운동장역 인근에 있는 만큼 주변에는 다양한 경기장이 자리하고 있다.  
 • 위치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학생체육관, 농구의 흥행과 열광

발길을 돌려 잠실을 향해 가보자. 1976년 11월 30일 준공하고 1977년 4월 20일 개장한 잠실학생체육관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배구, 농구, 프로레슬링, 복싱 등 많은 종목의 경기가 열렸으며 과거 중요한 농구대회도 대부분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렸다. 전국의 학교들이 모여 누가 누가 잘하나를 겨루고, 우승을 향하여 열정을 불태웠던 곳이다. 2004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서울 SK 나이츠 프로농구팀이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잠실학생체육관에서 농구대회가 열리면 관중은 열광했다. 선수들의 슛에 열광하고 애국심이 발휘했다. 외국 팀과의 경기는 애국자가 되는 시간이었다. 흥분의 도가나가 따로 없었다. 지금도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농구 선수들의 이름이 소명된다. 현대와 삼성은 남자 실업 농구의 맞수로서 실업 농구의 인기를 끌어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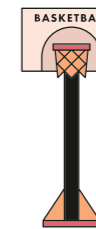


1977 잠실학생체육관 ©동아일보DB

이충희, 김현준, 박수교, 허재 등의 슛은 관중을 체육관으로 몰려오게 했다. 여자 실업 농구는 상업은행의 독주에서 태평양화학이 등장하면서 경쟁은 절정에 이르렀다. 영원한 맞수는 관중을 열광하게 했다. 이때 많은 농구팀이 탄생했다.



여자 농구팀에게 올림픽 은메달은 꿈이 아니었다. 84년 LA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어 꿈은 현실이 됐다. 그 시절 여자 농구를 통해 대한민국을 알렸던 분들은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 세대가 됐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과거의 화려했던 모습을 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선수는 사라졌지만 공간은 그대로 남아 우리를 반겨준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웃고 울었다. 이겼다는 기쁨을 못이겨 울고, 저서 슬퍼했다. 체육관이 많지 않았던 시절 잠실학생체육관은 농구의 터전이었다. 서울의 농구는 곧 한국의 농구를 말한다. 국내에서 농구를 처음 시작한 도시도, 앞에서 소개한 이화학당, 장충체육관, 잠실학생체육관 등 한국 농구의 확산을 이끈 공간들도 서울이다. 나아가 이 공간들은 모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그리고 서울과 서울 밖을 연결할 수 있는 농구의 역사를 담고 있다.



11월, 쌀쌀해진 날씨와 함께 실내 스포츠의 꽃, 농구 시즌이 돌아왔다

공간은 우리를 부른다. 처음 만난 모습과는 다르지만 그 건물이 있는 공간은 옛날과 다르지 않다. 공간은 낭만과 추억을 소환한다. 체육관은 그냥 농구대회만 하던 곳이 아니다. 그곳에서 만나고 얽힌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연 많은 곳이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과거의 낭만을 다시 찾아 추억에 잠길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그리워지면 자신이 처음 경험했던 공간을 찾는다. 아니, 그 공간이 우리를 부른다.

이곳에서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응원하고 즐거워했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체육관은 관중이 좌석을 채우고 응원과 열광으로 살게 한다. 텅 빈 체육관은 박물관 전시물과 같다. 사람이 사라진 공간이 된다. 사람의 온기는 체육관에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 주말에 옛날 사람들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웃고 울었던 이화학당, 장충체육관, 잠실학생체육관을 찾아보자. 그들이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장소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

글을 쓴 **이학준**은 스포츠철학을 전공했으며 대학에서 스포츠의 역사, 철학, 문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쓴 책에는 <서울의 농구>가 있다. 제6대 한국 스포츠인류학회 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한국체육철학회 부회장과 대구대학교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연구교수로 있다.



## 장애·비장애 통합체육, 한 걸음을 더한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현 정부의 국정 세부 과제 중 60번째에 해당하는 타이틀이다.  
말 그대로 누구나 어디서나 스포츠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 국정 과제 중 한 자리를 꿰차고 있다.  
스포츠 취약 계층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통합형 체육시설 착공 소식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이번 호에서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실현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두 걸음, 세 걸음 나아가는 길 위에서 서 있는 통합체육에 관해 알아본다.



# 나에게는 당연한 이것, 누군가에게는 절실하고 먼 그것!



©Shutterstock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실태 및 필요성’**  
이라는 주제의 원고 요청을 받고 고민이 많았다. 전국에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이 몇 개나 있는지 검색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수치에 관한 실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행히 원고 요청의 의도 역시 수치적 실태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원했다. 수치적 실태는 간혹 현실의 모습을 가리곤 한다. 때로는 현장의 이야기가 조금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일 때가 많다.

**당연하고도 절실한 이야기**  
유독 덥고 습한 여름을 나면서 사람들은 ‘어서 가을이 오면 좋겠다’라고 했다. 가을이 오니 걷고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라며 들로 산으로 신체 활동이 늘었다. 오늘은 10명의 주부와 하천에서 쓰레기를 주웠다. 여름에 자주 하지 못한 플로깅(Plogging) 모임이 활발해졌다. 플로깅은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건강을 위한 신체 활동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함께

하는 것이다. 10명 중에는 평소 운동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운동을 자주 하지 않지만 이 모임에 나오는 것을 좋아해 웃고 떠들며 걷는 사이 본인이 1만 보 이상 걸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한 시간여 활동 후, 운동 이야기가 나왔다. 누군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에서 하는 요가 강좌에 등록했다고 한다. 그는 과거에 집 근처 요가센터에 등록을 했지만, 그것마저 멀어서 잘 가지 않은 경험이 있

“오랜 기다림으로 반갑게 방문했지만 주차장, 이동로, 화장실 등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의시설에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다는 말과 함께 아파트 내에서 한다면 자주 참여하지 않을까 싶어 등록했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맞아 맞아”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이처럼 생활체육은 일상에서 즐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운동은 싫지만 환경보호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걷는 것. 집에서 조금 먼 곳은 가기 어렵지만 가까운 곳이라면 참여가 가능한 것.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장애인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현실이다.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누구도 관심 없던 시절이 있었다. 1975년 서울 정립회관에 처음으로 장애인이 수영할 수 있는 시설이 생겼고, 1988년 서울 패럴림픽을 치르며 사람들은 점차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단순히 치료 관점으로만 보았기에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장애인체육은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영역의 체육시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각 지자체에서도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 하나씩 늘어났다. 그 이후 통합체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울림체육관,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등의 이름으로 체육시설이 곳곳에 생겼다. 2018년 평창 패럴림픽을 치른 장애인 선수들에게 “장애인 체육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대답을 들었고, 전국에 반다비 체육관이 지어지기 시작했다. 장애인이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은 이전보다 분명 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접하기도 한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지어놨는데 실제 장애인들의 이용률이 너무 낮아 운영이 힘들다.” 그래서 대안이자 가장 이상적인 통합체육시설을 지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의 이용률은 낮다. ‘대체 장애인 체육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라며 의아해 한다.

**장애인 체육관인데 편의시설이...  
이용할 운동 기구가...**

한 지역에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가 지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그 지역의 많은 장애인은 설레는 마음으로 체육시설이 지어지기를 기다렸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체육시설의 오픈 소식을 듣게 된다. 오랜 기다림으로 반갑게 방문했지만 주차장, 이동로, 화장실 등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의시설에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결국 체육시설은 추가 공사를 하게 되고, 개관은 늦어졌다.

또 다른 지역 역시 같은 체육시설이 생긴다는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다. 시간이 지나고 개관 소식에 체육시설을 방문했다. 새로 지은 건물이라 그럴까? 편의시설이 그래도 크게 불편하지 않아 반갑기 그지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체육시설에 장애인은 더 이상 방문하지 않는다. 왜 찾지 않느냐는 질문에 더 이상 화낼 기운도 없다는 듯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 기구가 하나도 없다” “장애인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없고, 프로그램 시간도 비장애인 위주로 짜여 있다”고 말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 한참을 대꾸도 하지 못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장애와 비장애에 구분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하다. 선진국들은 이미 장애와 비장애 구분 짓는 것을 더 어색해 한다. 되레 “왜 그래야 하나”라고 묻는 경우가 많다. 통합체육이 가장 이상적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길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가능한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왜 장애인형 체육시설을 만들었는데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워 추가 공사를 해야 하는가?**

설계 단계부터 시공과 마지막 점검까지 장애인의 접근에 관해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예를 들면, 다양한 장애 유형으로 구성된 장애인 모니터링단과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전문가가 참여했다면 어땠을까? 아니, 장애인형 체육시설이 아닌 모든 체육시설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어땠을까?

**왜 장애인형 체육시설을 만들었는데, 장애인이 오지 않는가?**  
 그 대답은 위에서도 언급했다. 헬스장에



스웨덴의 일반 체육시설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변형 운동 기구가 있다



스웨덴의 공원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마련되어 있다

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 기구가 없다. 그렇다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 기구는 원래 없는가? 그렇지만도 않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하는 이천 훈련원에는 장애인이 운동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운동 기구가 잘 설치되어 있다. 혹은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에도 그런 운동 기구들이 있는 곳이 있

다. 스웨덴 방문 당시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아닌 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 가능한 운동 기구를 보았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혹은 ‘비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이 아니다.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운동 기구들이었다.

\*유니버설 디자인 성별, 나이, 국적, 장애 유무 관계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  
 \*\*배리어 프리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물리적·제도적·심리적인 장벽 등을 제거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운동

**왜 장애인형 체육시설에는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인가?**  
 체육시설의 운영 주체는 다양하다. 장애인체육회인 경우도 있고, 별도의 수탁 기관인 경우도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이기도 하다. 이곳의 종사자 가운데는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원과 장애인 스포츠 전문가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종사자들이 후자에 속한다면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장애인형 체육관은 장애인이 우선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선진국들의 시설에는 관련 전문가가 아니어도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인식이 있는 직원들이 많다. 장애인 체육시설 종사자도 장애 이해나 장애 인식, 장애인 스포츠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 장애인에게 먼 거리 이동을 강요하는가?**

장애가 없는 어떤 이는 집에서 자차로 몇 분, 대중교통으로 10여 분 거리의 요가센터도 멀다고 귀찮아서 잘 다니지 못했다고 한다. 아파트 내에서 하는 요가 교실은 가까우니 다녀볼 만하다고 한다. 이동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비장애인도 먼 거리는 꺼린다. 장애인도 어떨까? 집 근처 사설 체육관 이용은 거의 불가능하다. 건축물에 대한 접근성도 그러하거나 장애인 방문했을 때 장애 이해도



일반 체육시설이지만 공간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와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그림으로 된 큰 안내판이 있다(스웨덴)

가 낮은 비장애인은 어찌할 줄 모르며 당황해 할 것이다. 결국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지만 그 지역에 한두 개 있는 체육관까지 이동하기에는 ‘이동권’ 문제라는 너무도 불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일상에 체육이 있는 삶**  
 우리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해 새로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이 보통 생활체육시설을 ‘체육관’으로만 인식한다.

하지만 집 앞 하천의 산책로를 걷고 달리는 것, 아파트 단지 내 또는 공원을 산책하며 쉽게 접하는 운동 기구. 이 모든 것이 생활체육의 범주이고 생활체육시설이다. 장애인생활체육 실태 조사에서도 장애인들은 집으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운동하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비장애인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비장애인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비장애인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비장애인이 즐기는 일상 생활권 내의 공간, 산책로, 공원, 주민센터 등의 체육시설(운동기구, 프로그램 등)을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우리가 애써 통합체육이라는 말을 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체육활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들의 인식을 포함한 환경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색의 계절 가을을 보내고 추운 겨울을 맞게 되는 이 시간, 내가 누리고 사는 편안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하고 먼 이야기임을 생각하며 함께 사는 삶을 꿈꾸는 시간이 되길 바라본다. ☺

글을 쓴 민술희는 나사렛대학교에서 남편과 함께 재활학(특수체육)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강의와 연구를 한다. 척수장애인 남편과 “장애인도 같이 좀 행복해봅시다!”를 외치며 장애인과 스포츠 영역에서 인권옹호 활동도 한다. 선진국을 다니면서 보고, 듣고,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휠링캠프(Wheelingcamp)’와 ‘라곰트래블(Lagom Travel)’ 채널 운영을 시작한 초보유튜버이기도 하다.



# 해외에서는 낯설지 않은 통합체육 문화!

통합체육은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한계와 제약을 넘어 전 생애적인 접근이 필요한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 2020 도쿄 패럴림픽에서 시작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WeThe15' 운동은 사회통합을 위해 통합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예다. 이 운동은 세계 총인구의 적지 않은 비중(15%)을 차지하는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체육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 통합체육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 변화

통합체육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 변화는 장애인 체육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류 사회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환경 속에서 장애인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시설 기반(Facility-based) 패러다임과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빴던 서비

스 기반(Service-based) 패러다임을 거쳐 장애인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는 1980~90년대 지원 기반 패러다임으로 넘어오면서 통합체육의 개념이 비로소 등장하고 지금까지 진화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통합체육의 필요성은 2000년대 이후 권한부여-자기결정(Empowerment and Self-determination) 패러다임으로 발전하며 통합 환경 안에서 장

애인의 느낌, 자기통제, 가치 등이 우선이 되어 그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고, 위험을 감수하고, 사회 참여의 방식을 조절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난 것이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통합체육교사 역량 강화 워크숍, 종목별·지역별 어울림스포츠대회 및 통합스포츠대회, 2018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3차 장애인체육 중장기 계획 등에서 통합체육 실현을 위한 정부와 장애인 체육 관련 기관의 노력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단발적인 대회 중심의 접근과 학교 체육 수업 안에서 통합체육을 바라보는 경향이 여전히 강해 통합체육의 틀을 확장하여 누구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통합 환경에서 체육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통합체육의 핵심, 접근성!

환경의 제약을 최소화하여 효과적인 통합체육을 형성화하는 데 필요한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접근성이다.

접근성은 바라보는 시각과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더 요약한다면 '통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접근성은 비단 물리적인 접근성뿐 아니라 인지적, 심리적, 정서적 접근성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접근성을 바라보는 확장된 개념은 물리적 접근성을 강조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디자인에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성을 강조하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접근성을 당연시하는 문화와 정책, 시설에 기반해 통합체육이라는 개념이 이미 사회 깊숙이 자리 잡았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국내외 통합체육의 긍정적 사례

영국을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모두를 위한 체육활동을 강조하며 스포츠와 신체 활동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누구든지 일상에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체육 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이분되어 있는 것과 달리, 미국은 미국 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U.S. Olympic & Paralympics Committee)를 운영하며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미국올림픽위원회의 하위 기관으로 운영되었던 미국패럴림픽위원회가 2019년부터 동등한 선상에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육 시설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독일·영국·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에서는 일반 체육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접근성 인증 제도를 활용한다.

북미에서는 통합적 체육 시설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체육용품 및 기구 등의 설계 및 배치에서도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과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통합체육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접근성이 확보된 체육 프로그램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10만여 개의 스포츠클럽 중 30% 이상의 클럽에서 장애인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

영하여 장애인의 참여를 위한 선택의 폭이 매우 넓게 지원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비영리 기반 체육시설인 YMCA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수많은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포괄적 건강 프로그램(Inclusive Health Programs), 변형 수상스포츠(Adapted Aquatics), 변형된 무술(Adapted Martial Arts), 모두를 위한 신체 단련(Fitness For All), 어린이를 위한 포괄적 여름 캠프(Inclusive Summer Camps For Children)와 같은 다양한 통합체육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지역사회에서 통합체육의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중심으로 통합체육을 위한 인적 지원과 시설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통합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접근성이 언제나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더욱 광범위한 통합체육의 확산을 위해 통합체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퍼지고, 접근성이 확보된 환경이 적극적으로 구축되길 바란다. ☎

글을 쓴 **진주연**은 장애인체육을 전공하고 현재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년 넘게 장애인 휠체어농구 선수 및 코치로 활동 중이며, 신체 활동 촉진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특수체육학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스포셜올림픽코리아, 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 이사와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통합체육 정책이 나아갈 방향

장애인 관련 영역에서 포괄적인 가치 지향점으로 다루어 온 '사회 통합'에서 스포츠를 통한 '포용사회'가 강조되는 추세다. 정부는 국정 과제인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을 이루고자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다 함께 스포츠를 즐기는 '통합체육'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 학교 통합체육 지원 강화

학령기 통합체육은 다른 교과와 달리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체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통합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데 가장 이상적인 교과이다.

통합체육 수업에 참여하는 장애 학생은 비장애 학생을 모델로 삼아 자신의 운동 수행을 점검하고 체육활동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상호작용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소통의 확대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사회성 및 대인관계 향상에 도움을 주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사회성 발달은 장애 학생이 사회에 적응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역량을 키우는 토대가 될 수 있고, 비장애 학생에게는 장애 인식 개선과 함께 자연스럽게 장애를 포용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팀 K리그 박승욱(포항스틸러스)선수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K리그 통합축구팀 축구 클리닉에서 참가 선수들의 슈팅을 지켜보고 있다

학령기 통합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통합체육 교사 연수 및 통합체육 수업 매뉴얼 개발, 통합체육 연구학교 선정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학교에서 통합체육을 지도하는 일반 체육 교사들의 참여 미흡, 통합체육 수업 기피 등이 통합체육 정착의 한계를 보인다. 학교스포츠클럽은 학생의 스포츠 활동 증진을 위해 활성화되고 있으나 장애 학생은 운동 기능 부족, 또래와의 상호작용 어려움으로 배제되는 상황이다. 특히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은 축구와 농구 등 경쟁 스포츠가 주를 이루기에 운동 기능 발달

수준이 낮은 장애 학생은 실질적인 참여가 제한된다. 장애 학생의 통합체육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뉴스포츠 등 통합 스포츠 종목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개최된 2022 서울림 운동회에서는 서울시장예인체육회와 서울특별시 교육청 연계로 서울특별시 20개 각급 학교에서 장애 학생·비장애 학생으로 구성된 '서울림통합스포츠클럽'을 결성했다. 농구, 빅발리볼, 스포츠 스텀킹, 단체 줄넘기 등의 정식 종목을 연습하고 팀워크를 다진 후, 운동회 당일 갈고닦은 기량을 학

교별로 겨뤘다. 2022 서울림 운동회는 단순히 이벤트 형식의 통합체육대회가 아니다. 평소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종목 기술을 연습하고 운동회에 참가하여 기량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진정한 통합체육으로서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학교 통합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학교스포츠클럽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합형 학교스포츠클럽 종목 개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통합형 학교스포츠클럽 시범학교 운영, 통합형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등 통합형 학교스포츠클럽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통합형 학교스포츠클럽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 체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시도교육청과의 연계·협력이 필수적이다.

## 통합체육교실 및 어울림체육리그 지원 확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통합체육 활성화를 위해 통합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종목별 지역 어울림생활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한다. 통합체육교실 지원 사업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스포츠 활동이 부족·미흡하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2017년 67개소, 2018년 75개소, 2019년 80개소, 2020년 49개소, 2021년 56개소로 감소 추세다. 특히 배드민턴, 탁구 등 통합체육 프로그램이 가능한 종목의 한정성과 특정 장애 유형으로

편중 및 가족과 보호자 위주의 참여로 통합체육교실 운영이 미진한 상황이다. 또한 기존 통합체육 수업 지도 매뉴얼은 학교 체육 수업 지도 위주의 지도서로 체육 현장에서 통합체육 종목을 지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역 어울림생활체육대회는 평소 훈련을 같이한 선수들이 참가하기보다 대회 참가를 위해 급조된 팀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으며 단발성 이벤트로 운영되어 통합체육대회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장애인체육리그 시범 사업으로 전문체육, 생활체육, 어울림체육리그를 추진하고 있으나 종목이 한정되어 있다. 전문체육 중심의 리그 운영으로 어울림체육리그 확대가 필요하다. 한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서는 발달장애선수와 파트너선수(비장애인)가 같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통합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통합 스포츠는 장애선수의 운동 수준에 따라 레크리에이션 단계, 발달 단계, 경쟁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 참여를 지원한다. 통합체육 참여 유형을 운동 기능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함으로써 기존에 운동 기능이 낮아 통합체육에 참여하지 못했던 장애인의 통합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듯 통합체육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장애 유형과 운동 기능 수준을 고려한 통합체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 통합 스포츠 교실 및 동

호회 지원 확대, 지역 통합 스포츠클럽 도입, 장애인 어울림체육리그 운영 확대 등 통합체육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통합 스포츠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커뮤니티 교류 증진 및 장애에 관한 사회 인식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통합체육, 모두를 위한 스포츠의 시작

그동안 통합체육은 단순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합체육에 참여하는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돕기 위한 배려와 동정심이 우선되었으며,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같이 참여한다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통합체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스포츠를 통해 공정하게 경쟁하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 통합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장애인 모두가 스포츠를 향유하고 건강과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통합체육은 장애인·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스포츠의 시작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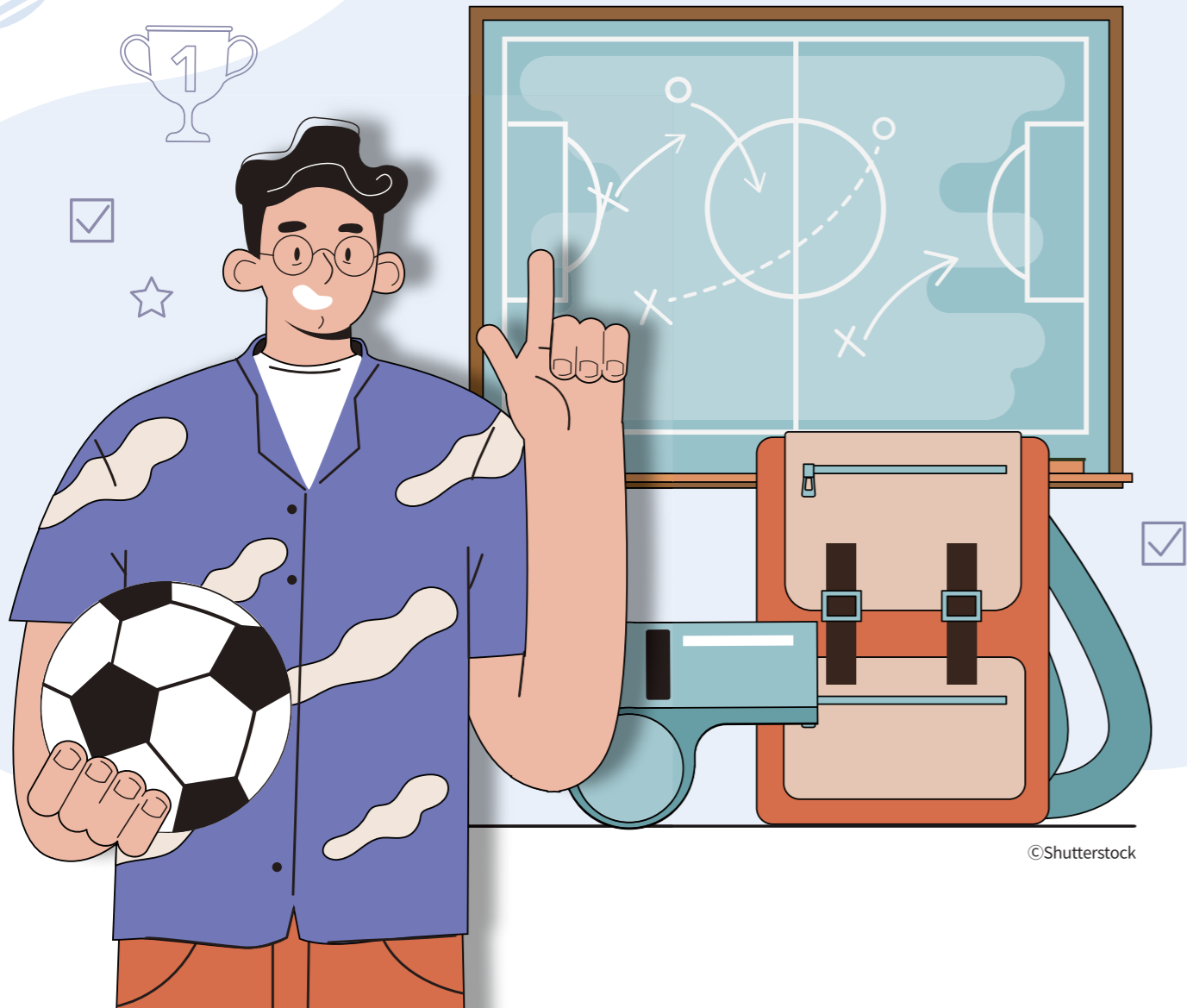
글을 쓴 이동철은 특수체육학을 전공했으며, 현재 한국 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정책연구실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장애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증진을 위한 연구 등 장애인 체육 정책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연구원 내에서는 이름보다 편하게 '장애인 체육'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지만 내 업이라 만족하며 지내고 있다.



'학교체육을 부탁해'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체육수업을 알차게 꾸려가고 있는 체육교사의 수업 소개 코너입니다.

# 우리 모두 잘할 수 있어! 진짜 체육교육 전문가 되기

오늘 수업은 축구, 내일 수업은 피구. 종목은 정했지만 어떻게 수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라져버린 체육수업. 학생들의 참여는 극과 극으로 나뉘지고 그 가운데 교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우리는 정말 체육교육 전문가일까?



©Shutterstock

## 본적, 배워본 적이 있던가?

매년 2~3월이 되면 체육교사들의 고민들로 메일함이 들썩거린다. '무슨 수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저도 수업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체육교육을 전공했고 교단에 서기까지 오랜 시간 노력하며 치열한 경쟁을 거쳤지만 많은 교사가 체육수업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한다.

대부분의 교육 과정은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닌 '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하고 활동을 구상해 많은 학생을 앞에 놓고 연습하는 과정은 전무하다. 한 가지 종목에 대해 두세 차시 이벤트식 수업을 경험해보는 교생 실습도 교육 전문가로 성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결과적으로 학창 시절부터 교사가 되기까지 체계적인 체육 수업을 본 경험, 배운 경험, 해본 경험이 없는 체육교육 전문가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일단 책부터 찾아봤다. 수업 사례에 대한 서적이 많지 않았기에 놀이와 레크리에이션 분야의 책들을 참고했고 이를 적용해 몸풀기 체조부터 본 활동까지 모두 게임 형식으로 바꿨다. 스포츠 종목 활동 시간을 축소했고, 간단하지만 움직임이 많은 놀이와 게임 활동 시간을 확대했다.

그러자 그동안 구기 스포츠에서 소외됐던 학생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고 전체 학생의 실제 학습 시간과 운동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축구나 피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원성이 있었지만 게임에서 이뤄지는 경쟁의 재미가 지속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마저도 사라졌다. 그런데 한 달 뒤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진작하기 위해선 매번 새로운 게임이 필요했다. 게다가 수업 장소와 성별은 물론 활동성까지 보장해야 하니 게임을 개발하는 시간이 점차 증가했다. 수업 간의 계열성도 부족했고 참여와 활동성에만 국한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 수업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체육수업을 잘한다는 것에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수행하고 이해하며 감상하는 전인적 교육 활동을 균형 있게 지도하는 능력을 중시하는 시각, 학생의 흥미와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능력을 중시하는 시각 등이 그것이다. 다양한 시각 가운데 어떤 수업이 좋은 수업이며,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교사 개인이 갖고 있는 교육관에 따라 가치 판단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또한 경험과 세월에 따라 변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사는 스스로 답을 갖고 있어야만



박연재 교사는 고민 많은 동료 체육교사들을 위한 유튜브 '인더스쿨'을 운영하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유한다

한다. 그래야 자신의 수업을 성찰할 수 있고 목표를 향해 노력을 이어갈 수 있다. 모든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활동 과제의 난도는 과감하게 낮춘다. 가령, 축구에선 떠 있는 공을 손으로 잡아서 킥을 할 수 있고 배구에선 네트를 없앤다. 티볼에선 손으로 던져 타격을 대신하기도 하고 농구에선 특정 구역의 선수가 공을 잡으면 골인으로 규칙을 정한다.

학생들이 쉬운 활동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면 이를 차시별로 계열화하여 수업을 설계한다. 예를 들어, 배구의 경우 처음엔 네트도 없고, 바운드도 가능하고, 공을 잡는 것도 허용한다. 하지만 차시가 지남에 따라 공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공을 패스할 때도 언더 토스와 오버 토스를 활용해야 하는 식으로 난도를 높여간다.

즉, 학생들이 이해하고 수행해야 하는 요소를 점진적으로 늘려 수업을 통해 활동에 필요한 기술이나 전술, 규칙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게임 활동으로 구성한다. 가령, 농구에서 패스와 캐치를 연습할 때 술래를 정해서 패스게임을 진행하고, 두 번째 차시에선 소유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을 두며, 세 번째 차시에선 공을 놓치면 술래가 되는 식으로 연습 활동 게임을 설계한다. 스피드 스테핑에선 학급 전체가 3-6-3을 연습한 후 미니게임을 진행한다. 1~3등은 포인트를 지급하고 6-6과 1-10-1, 사이클도 동일하게 연습과 미니게임을 병행한다. 이와 같은 게임 형식은 학생들을 몰입하게 하고 수업에 흥미를 지속시킨다. 게임 활동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경우 수업의 완성도는 더욱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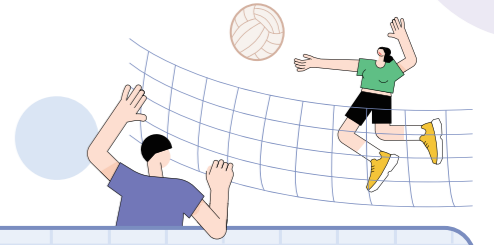


**체육교육 전문가가 되기 위해**

신규 교사 때부터 다양한 활동을 시도했다. 수업은 성공하기도 했고 때론 처참하게 실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기록했다. 활동을 어떻게 설계했고, 규칙은 무엇이며, 필요한 기구는 무엇인지. 그리고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는 무엇인지 노트에 적었다. 개선해야 할 점이 정리되었고, 이러한 과정은 다른 종목으로 확장했다. 결과적으로 4년 차가 됐을 때 실내·외에서 할 수 있는 1년 커리큘럼을 마련했다. 하지만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환

경이 많다. 그렇기에 지금도 유튜브와 수업 나눔 공동체 참관 서적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수업으로 만들어본다. 11년째 이 과정을 반복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진짜 체육교육 전문가가 되기 위해.’

글을 쓴 **박연재**는 청담고등학교 체육교사다. 유튜브 채널 ‘인더스쿨(In The School)’에서 체육수업에 관한 아이디어와 사례들을 공유한다. 수업에 대한 열정이 식었을 때, 어떻게 수업해야 할지 고민될 때 ‘인더스쿨’을 추천한다. 체육교사의 진지한 고민과 노력하는 모습이 당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이다.



**농구 수업 설계**

**1차시**

**4인 패스 게임(1)**

- 3명은 패스, 1명 솔래
- 소유하고 있거나 패스 중에 있는 공을 솔래가 터치할 경우 솔래가 바뀐다.

**변형 농구 1단계**

- 코트 양쪽 끝에 스텝박스를 놓고 한 명이 올라가 골대 역할을 한다.
- 골대 학생에게 패스가 연결되면 득점이다.
- 팀의 모든 학생은 순서를 정해 골대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득점할 때마다 양 팀 모두 다음 순서의 학생이 골대 역할을 한다.
- 공을 잡은 사람은 움직일 수 없고 패스로만 공격을 이어갈 수 있다.



이후 차시는 공을 터치하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드리블을 두 번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5~6차시에선 A→B→A 식의 리턴 패스를 금지하여 여러 명이 경기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2차시**

**4인 패스 게임(2)**

- 공을 소유한 사람은 3초 이내에 패스해야 한다.

**변형 농구 2단계**

- 공을 3초 이내에 패스

**5인 패스 게임(3)**

- 2명이 솔래 역할을 한다.
- 공을 소유한 사람은 2초 이내에 패스해야 한다.
- 공을 놓칠 경우 솔래가 되는 규칙을 추가한다.
- 솔래가 바뀌는 경우 2명의 솔래 중에서 먼저 솔래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 나간다.

**변형 농구 3단계**

- 공을 2초 이내에 패스
- 공을 놓친 사람은 공을 다시 잡을 수 없다.



<여학생까지 이렇게 많이 뛰다고!! (Feat. 사실 매일 이럼) / 농구 변형 게임 수업 / 체육수업 디자인 >, 유튜브 ‘인더스쿨 in the school’

**배구 수업 설계**

**1차시**

**2인 풍선 배구 게임**

- 2m x 5m 크기로 라인을 그려 코트를 여러 개 만든다. 네트는 없다.
- 한 명씩 번갈아가며 풍선을 터치해야 한다.
- 서비스는 자신의 코트에서 풍선을 어깨보다 높은 위치에서 위 방향으로 상대 코트에 넣어야 한다.
- 스파이크는 세 번째 터치에서만 가능하며 어깨보다 높은 위치에서 터치가 이뤄져야 한다.
- 첫 번째나 두 번째 터치에서 상대 코트로 넘기기 위해선 풍선을 위 방향으로 보내야 한다.
- 블로킹은 할 수 없으며 풍선이 사이드 라인과 엔드라인에 맞으면 인, 센터 라인에 맞으면 아웃이다.

**3인 풍선 배구 게임**

- 한 명에 한 번씩만 터치할 수 있다.

**2차시**

**2인 풍선 배구 게임 복습**

**2인 풍선 스파이크 연습**

**폼볼 배구 1단계**

- 2대2 경기
- 서비스는 두 손으로 키보다 높게 올려서 상대 코트로 넣어야 한다.
- 공을 한 명씩 번갈아가며 터치해야 하며 상대 코트에서 넘어오는 공은 1번 바운드 후 잡는 것이 가능하다. 두 번째 선수도 공을 잡을 수 있다.
- 스파이크는 세 번째 터치에서만 가능하며 어깨보다 높은 위치에서 타구가 이뤄져야 한다.
- 첫 번째나 두 번째 터치에서 상대 코트로 넘기기 위해선 키보다 높게 넘겨야 한다.
- 블로킹은 할 수 없다.

**3차시**

**폼볼 배구 1단계**

**4인 폼볼 스파이크 연습**

**폼볼 배구 2단계**

- 3대3 경기
- 두 번째 공을 터치하는 사람은 공을 잡은 상태에서 오버 토스로 공을 띄워야 한다.
- 공을 잡은 사람은 2초 안에 패스해야 한다.



<반응없는 학생들과 라포형성기 ② / 배구 변형 게임 / 체육수업 디자인 >, 유튜브 ‘인더스쿨 in the school’



이후 차시는 공을 터치하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코트를 두 개씩 연결하여 인원을 한 명씩 추가하는 식으로 설계한다. 5~6차시에선 배드민턴 코트에서 경기를 진행하고 7~8차시에선 빅발리볼이나 킨볼배구공을 활용한다.





지난 2020년에 첫 발걸음을 떤 남녀노소 모두에게 열려 있는 광진구스포츠클럽. 지역 주민에게 스포츠의 즐거움과 건강한 삶을 선사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역 주민 누구에게나 열린 곳

2020년 2월부터 정식 운영한 광진구스포츠클럽은 자양유수지를 복개해 건립했다. 빗물펌프장과 공영주차장으로만 사용돼 활용도가 낮았던 곳에 문화체육시설을 간절히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 설립한 것이다. 특히 광진구스포츠클럽의 거점 시설인 자양체육관에서는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이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8개 종목(배드민턴, 에어로빅, 공요기, 줌바, 탁구, 농구, 배구, 매직테니스)·30개 프로그램이 있으며 5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들의

연령대는 유아부터 노인까지 폭이 넓다.

여느 공공스포츠클럽과 비교했을 때, 광진구스포츠클럽만이 가진 강점 중 하나는 지리적 위치다. 광진구스포츠클럽은 한강 인근에 있다는 점을 살려 수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년 여름방학에 특강으로 운영하는 윈드서핑과 패들보드는 단연 인기가 많다. 한편 배드민턴과 농구, 탁구 등을 대상으로 자체 친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회원들의 실력 향상과 상호 친목 도모뿐 아니라 스포츠클럽에 대한 애정을 높여가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곳

광진구스포츠클럽은 회원 중심의 자치적 운영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운영을 지향한다. 올해 학생 대상 여름방학 특강으로 운영했던 종목 중 하나인 매직테니스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됐다. 최근 주목받는 테니스 종목도 정규 프로그램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30명 정원이었던 탁구 종목은 많은 회원이 찾아 정원을 40명으로 늘린 바 있다. 광진구스포츠클럽은 한기범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가 설립한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과 MOU를 체결했다. 특히 한기범 감독이 매달 1~2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농구 강습을 진행해 특화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총 140명인 7개 반의 정원은 매월 조기 마감될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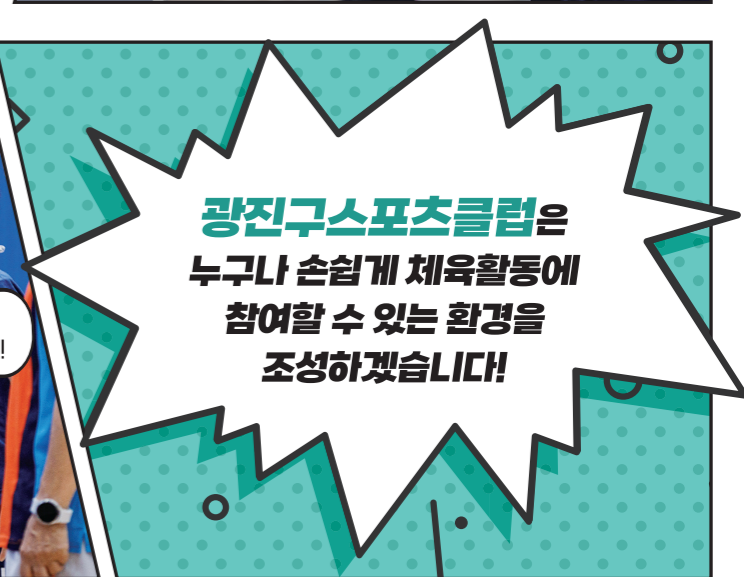
도로 회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연말에는 농구를 전문선수반으로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전문선수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새로 취임한 김경호 광진구구청장은 공공체육시설 운영 시간 확대 및 명절 연휴를 포함한 공휴일 개방 검토를 고려하는 등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고 있다. 이에 광진구스포츠클럽은 주말에는 대관으로만 운영하던 자양체육관에 배드민턴 주말 정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지역 주민의 스포츠 진입 장벽이 한층 더 낮아지게 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이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광진구스포츠클럽의 앞날을 기대해본다.



**광진구스포츠클럽  
활기차고 보람찬 하루!**  
재밌는 스포츠 생활 속으로 들어가보자~





# 대학스포츠 문화 확산을 향하여,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

홍보마케팅팀 강병무 주임 & 기획총괄팀 이정은 주임

대학스포츠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젊음과 열정으로 경쾌한 에너지를 뽐내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홍보마케팅팀 강병무 주임과 기획총괄팀 이정은 주임을 만났다.



홍보마케팅팀 강병무 주임

기획총괄팀 이정은 주임

'스포츠 業UP'은 막내 입사자의 눈을 통해 본 공공체육(유관)기관 직업 소개 칼럼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관계된 정부 부처는 문화체육부이지만, 교육부와도 연계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병무 주임**· 이와 더불어 KUSF가 추진하는 사업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단번에 정리하는 캠페인이 있어요. “What’s your sport?” 인데요. 1학생 1스포츠 문화 확산을 통해 모든 대학생이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처럼 KUSF는 누구나 스포츠를 스스럼없이 즐기는 문화를 만드는 곳입니다.

### KUSF의 입사 전형 절차가 궁금해요.

**이정은 주임**· 1차 전형은 서류로, 2차 전형은 면접으로 진행돼요. 1·2차 전형에서 모두 합격하면 최종 전형에서 신체검사와 결격조치가 이루어지고요. 채용 공고에 직급과 분야가 기재돼 올라오니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아요.

**강병무 주임**· 또 필수 항목은 아니지만 저는 토익 점수와 컴퓨터 활용능력,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기본적으로 준비했어요. 모든 전형이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력 등 배경을 떠나 ‘나’의 강점을 최대한 드러내는 게 좋아요.

### 입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것이 있나요?

**이정은 주임**· 아무래도 유사 직무 경험이 중요해요. 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인턴도 하고, KUSF에서 계약직으로 일한 경험이 있어요. 관련 기관에서 경험을 쌓은 것이 입사 후에 업무를 빨리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강병무 주임**· 사실 저는 특별히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학부생부터 제가 쌓은 경험들을 돌아켜보니 KUSF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이 저와 결이 잘 맞더라고요. 학생선수들과 함께 여러 활동을 경험한 것과 교내 축구 대회를 주관한 경험이 저를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이끈 것 같아요.

### 마지막으로 KUSF 입사를 꿈꾸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정은 주임**· 지금까지 제가 느낀 스포츠의 긍정적인 가치를 많은 사람이 함께 알기 바라는 마음으로 KUSF에 입사했어요.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KUSF에서 보람차게 일할 수 있으실 거라 믿어요. **강병무 주임**· 저는 직장을 선택할 때 주관이 뚜렷한 편이었어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스포츠 문화를 만들고 싶다’는 저만의 가치가 생겨서 지원했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 활동을 경험하면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

###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정은 주임**· 안녕하세요. 2021년 7월에 입사한 기획총괄팀 이정은 주임입니다. 대학스포츠 인권 증진 사업과 체육특기자 대입 관련 사업을 중점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병무 주임**· 안녕하세요. 2022년 4월에 입사한 강병무 주임입니다. 홍보마케팅팀에서 대학스포츠 대학생 기자단 사업과 학생선수 및 선수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KUSF U-스포츠마케팅 러너(이하러너)’라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담당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이정은 주임**· 인권 증진 사업은 작년에 시작한 신규 사업이에요. 스포츠 문화 내에서 인권 친화적인 문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2021년도에 개발한 교안을 토대로 KUSF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교육 강사를 양성해 각 대학에 파견합니다.

**강병무 주임**· 러너 사업은 여러 스포츠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입니다. ‘러너’란 새로운 꿈을 향해 달리고(Run), 배우는(Learn) 대학생을 의미해요. 학생선수, 선수 출신 대학생들이 선수 생활 이후의 새로운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이론 강의와 실습 기회를 지원합니다.

###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 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는 어떤 곳인가요?

**이정은 주임**· KUSF는 대학 학생선수가 학생으로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대회 출전이나 훈련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대학운동부 지원 사업, 학생선수 선발 정상화,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육특기자 대입제도 개선 등 아주 다양한

**KUSF**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대학운동부를 운영하는 각 대학 총장들이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활성화, 선진화를 위해 지난 2010년 설립됐다.



'스포츠 데이터랩'은 빅데이터를 통한 스포츠산업계의 변화와 미래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마련한 코너입니다.

# 인공지능 기반 스포츠 중계방송 서비스의 등장과 발전

TV 중계방송 중심의 매스미디어에서 인터넷 기반의 개인 미디어로 소비자 측면에서 변화가 일고 있다. 제작자 입장에서 콘텐츠가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단순 반복 작업을 처리하던 인력 수요가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스포츠 경기 중계를 하려면 3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했으나 인공지능 자동 중계 솔루션 설치로 한 명이면 가능한 시대가 왔다. 또한 콘텐츠 압축 기술의 발전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스포츠 중계방송의 유통과 소비가 가능하다.



## 인공지능 스포츠 방송 중계 솔루션의 등장

촬영기사가 직접 카메라 등의 장비를 제어했던 시대에서 5G 네트워크에 연결된 카메라와 중계방송 장비 등을 인공지능이 제어하여 최적의 중계 화면을 제작하고 송출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인공지능이 스포츠 제작 PD, 촬영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영상 촬영, 편집, 중계, 더 나아가 화면 그래픽까지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KT가 인공지능 방송 중계 솔루션 전문 회사인 '픽셀스코프(Pixelscope)'와 협업하여 한국프로탁구리그 232경기를 인공지능으로 중계방송하고 있다. 17개의 설치된 카메라를 인공지능이 제어하여 다양한 영상을 확보한다. 예를 들면, 탁구 선수가 서브를 넣을 때 클로즈업하여 선수를 보여주고, 랠리가 진행될 때는 전체 화면으로 전환하고, 점수가 나면 시청자들이 다양한 시점에서 볼 수 있도록 영상을 다각도로 보여준다. 더 나아가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공과 선수의 움직임을 딥 러닝(Deep Learning) 기술로 인지하여 경기 종료 후 수집한 영상 기반 경기 기록으로 선수의 주요 공격 및 수비 위치, 공격 횟수, 평균 속도, 서브 위치에 따른 득점도 등 다양한 분석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클라우드에 영상을 저장하기에 저장 장치도 사용할 필요가 없어 분실 위험과 데이터 손실 위험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 Shutterstock



인공지능 스포츠 방송 중계 솔루션의 적용 사례

AI스포츠미디어 플랫폼 와이에스티는 인공지능 스포츠 중계 플랫폼인 'AI Sports TV' 앱을 운영한다.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는 2022 춘계 및 추계 전국 중등 축구대회에 적용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다. 파노라마 영상으로 전체 경기장을 볼 수 있으며 원하는 영역을 확대하거나 특정 선수의 움직임도 볼 수 있어 학부모나 지도자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SK텔레콤은 2022년 6월 개최된 골프대회에서 인공지능 미디어 기술을 접목한 스포츠 중계를 진행했다. SK브로드밴드 B tv에 플러스바 기능을 적용하여 시청자들이 생방송 중계 관람 중에 선수 및 대회 정보, 순위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실시간 양방향 데이터 기술의 접목을 통해 스마트폰의 검색 없이 IPTV에서 직접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메타버스 중계로 가상 지도에 선수 및 경기 데이터를 결합하여 선수의 티샷 궤적, 볼 낙하 지점, 비거리, 샷 분포도 등을 보여준다. 인공지능이 주요 경기 장면을 편집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도 제공하여 시청자 입장에서 관심 있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도록



©SK브로드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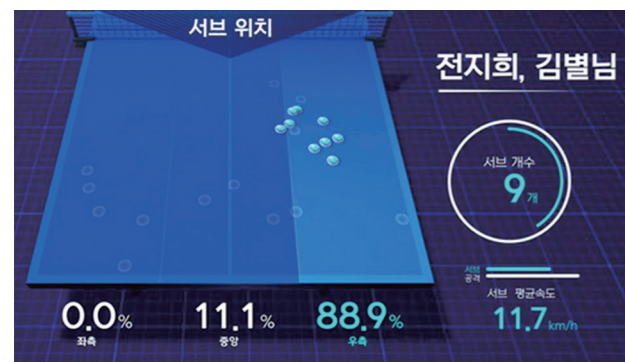
편의와 흥미를 극대화했다. 이스라엘이 개발한 '픽셀롯(Pixellot)'은 영상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스포츠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8000대 이상의 특수 카메라와 중계 시스템이 전 세계 경기장에 설치되어 촬영과 동시에 실시간 방송 또는 인터넷 중계를 한다.

사람이 하는 일은 카메라를 경기장에 설치하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뿐이라 기존 중계 비용의 90%를 절감할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 방송 전문가의 영상 보여주는 방식을 학습하여 특정 패턴을 구축하기 때문이다. 즉, 농구의 경우 외곽에서 패스를 할 때는 큰 화면으로 잡아주고 골 밑으로 드리블하여 레이업 샷을 할 때에는 선수를 확대해서 보여주는 패턴을 만들어 놓고 촬영된 영상을 인식하여 상황별로 자동 영상 전환을 한다.

이와 유사하게 인공지능 스타트업 '리디아(Leadia)'는 농구 골 득점 영상 자동 하이라이트 서비스인 올코트를 개발했다.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 영상이 확보되면 이 중 모든 골 득점 장면만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하이라이트 영상을 웹과 앱으로 제공한다. 영상뿐만 아니라 음성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자동으로 생성한다. 프로야구팀을 운영하는 엔씨소프트(NCSOFT)는 스포츠 캐스터의 패턴과 특징을 기억하여 경기를 음성으로 중계하는 합성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현장 상황에 따라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중계방송을 들을 수 있다. 야구나 골프 중계 시 트랙맨이나 4D 리플레이와 같은 기술을 통해 각종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시청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것은 스포츠 중계에 있어 기본이 되고 있다. 이제는 더 나아가 결과를 예측하는 서비스까지 시행되고 있다.



KT의 무인 중계 현장 ©KT



AI 중계 솔루션이 제공하는 경기 데이터 ©픽셀스코프

'아마존(Amazon)'은 포물라윈 경주용 차량에 120개의 센서를 탑재하여 랩타임, 타이어 마모 정도, 현재 날씨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인공지능 솔루션을 통해 앞서가는 차를 추월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여 중계 화면에 제공한다. 미식축구 중계에서도 기본적인 영상 정보뿐만 아니라 쿼터백 선수들의 어깨 보호 장구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패스 데이터를 확보한다. 과거 3만5,000회의 패스 정보와 선수들 위치, 패스 예상 시간, 패스 거리 등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쿼터백의 패스가 성공할 확률을 계산해 중계방송에 보여준다.

기술의 발전으로 스포츠 중계 서비스는 향후 어떻게 변할까?

전통적인 TV 중심의 시청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개인 미디어를 통해 스포츠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 매스 미디어(Mass Media)가 아닌 1인 미디어(Personal Media) 시대인 것이다.

카메라 한 대에 촬영기사 한 명이 붙어서 운영하는 시대는 지났다. 수백 대의 카메라도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청자의 몰입감과 흥미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 및 서비스가 개발될 것이다. 단순 영상 정보뿐만 아니라 선수나 경기 관련 데이터까지 통합되어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질 것이다.

스포츠 캐스터나 해설자도 인공지능이 개입하여 동시에 여러 관점의 중계방송 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이다. 편파 방송을 넘어 내가 좋아하는 선수 관점에서 중계방송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 더 나아가 스포츠 경기 현장에서 선수들이 직접 느끼는 감각까지 시청자가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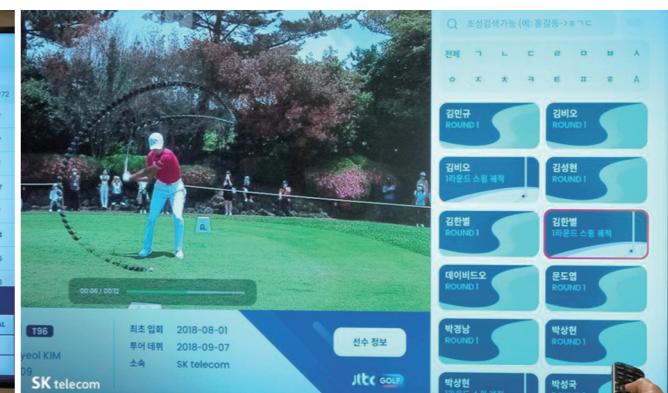


©Shutterstock

글을 쓴 오자왕은 스포츠 산업 관련 지식과 인재의 허브인 서울대 스포츠산업연구센터에서 다양한 스포츠 분야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스포츠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함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자는 사명을 가지고 ㈜스포츠인텔리전스를 운영 중이며 한국체육학회, 서울시체육회를 비롯해 여러 스포츠협회에서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AI 기술을 도입해 시청자들이 스포츠 경기를 생성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 됐다





# 프로구단, 지역사회로 더 들어가야

“전국에 계신 K리그 팬들께 호소합니다.” 성남FC 팬들이 호소문을 내놓았다.  
33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구단이 존립 위기에 처한 것이다. 성남FC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도민 구단으로 운영하는 수많은 종목 구단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축구 피라미드의 최상단에는 기업 구단 및 시도민 구단으로 구성된 프로축구가 있다

## 뜨거운 눈물 연대기, K리그

그때 나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있었다. 매서운 11월의 바람, 동대문운동장을 일순간 휩쓸고 지나가는 칼날의 바람이 불었지만, 나는 앉아 있었다. 굶은비도 조금 내렸던가. 분명히 내 기억으로는 적지 않은 ‘아재 팬’들이 어디서 구했는지 라

면 상자 같은 걸 머리에 뒤집어쓰고 담배를 피우면서 이따금, 잊었다는 듯이, 아주 이따금 ‘박종환 파이팅’ 한 번 외치고는 또 담배를 한 모금 피는 장면이 남아 있다. 1990년대 초반의 동대문운동장. 지금은 근사한 디자인 전용 건물이 동대문 지역의 오랜 역사와 완전히 절연된 채 불시착한 우주선처



철거되기 전 동대문운동장 모습

“  
K리그는 크게  
기업 구단과  
시도민 구단으로  
나뉜다  
”

럼 들어서 있지만 한때 그곳은 모든 작은 삶이 실핏줄처럼 연결된 운동장이었다. 그 이름도 고색창연한 동대문운동장! 나는 1990년대 초반의 동대문운동장에 자주 갔었고 그곳을 연고로 하는 일화천마(나중에 천안 일화와 성남 일화를 거쳐 2014년 이후 성남 FC가 됐다)를 응원했다. 그때는 오늘날의 응원 문화가 탄생하기 전이었다. 대부분 아재 팬이었고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박종환 당시 축구 감독과 이영진, 이상운, 고정운, 사리체프(신의손), 안익수, 신태용 같은 선수들을 편파적으로 응원했다. 승패를 떠나 달리기를 마다하지 않기도 했다. 아재 팬들은 왜 달렸나? 심판 판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달렸고, 경기에서 져서 달렸고, 또 경기에서 이겨서 달렸다. 그들은 달렸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라커룸까지. 그리고 또 어디까지 달렸을까. 나는 그들이, 그 아재들의 후배들이 팬에서 팬으로 이어지는 격렬한 감정의 연대기가 지금 바로 성남FC 탄천종합운동장의 관중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시대에 따라, 당대 감정의 무늬에 따라 축구와 스포츠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식은 달라지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팬심’이다. 팬은 선수가 뛰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중석에서 함께 뛰는 또 다른 선수다. 함께 달리고, 웃고 우는 사람들.

그들 감정의 역사에 아로새겨져 있는 뜨거운 눈물의 연대기가 우리 축구, 곧 K리그의 유산이다.

## 기업 구단과 시도민 구단

이런 회고와 걱정을 강조하는 까닭은 지금 우리의 K리그가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1983년 5월 8일, 할렐루야 독수리 대 유공 코끼리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곧 40주년을 맞이하는 K리그는 오랜 세월이 곧 위기의 연속이었다. 불안정한 연고지 정착, 갑작스러운 연고지 이전, 비정상적인 티켓 관행, 유소년 연계 등에 따른 생태계 불안, 리그 운영의 잦은 변화, 뒤늦게 도입한 승강제, 개선되지 않는 중계권료 등의 울퉁불퉁한 과정을 거쳐 지금의 K리그로 이어져 왔다.

K리그는 크게 기업 구단과 시도민 구단으로 나뉜다. 기업 구단에는 전북현대(현대자동차), 서울 이랜드 FC(이랜드그룹), FC 서울(GS그룹), 제주 유나이티드(SK이노베이션) 등이 해당한다. 이들은 기업 자체의 목적을 떠나 창단과 운영 등 오랜 기간 한국 프로축구를 위해 공헌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연고지 이전 논란, 구단의 독립적인 운영, 지역사회와의 창조적인 결합 등은 여전히 숙제다. 더 큰 문제는 시도민 구단이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시도민 구단은 연고지의 시민들이 공개 주식 매매에 참여





성남FC 팬들이 강등 위기에 처한 구단과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관중석에 메시지가 담긴 플래카드를 설치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협동조합(출자 금액과 상관없이 조합원 1인1표제의의결권행사) 수준으로 운영하는 구단을 뜻한다. 그러나 K리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를 바탕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지자체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지자체 단체장의 정책 방향과 의지에 따라 구단 운영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단체장은 자동으로 구단주가 된다.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의해 단체장이 바뀌면 구단의 핵심 라인(단장, 사무국장)이 교체되기 일쑤다. 이에 따라 전문 역량을 갖춘 실무진은 4년 이상의 장기 계획보다 자주 교체되는 구단 상층부에 맞추기 급급했다. 해당 지역의 축구 여론이 있고, 전체적으로 통할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있으며, 무엇보다 열혈 팬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 뼈대는 유지됐지만 구체적인 운영 사안에 관해서는 단체장 교체와 방향에 따라 크고 작은 불협화음이 지속되어 왔다. 단체장 선거에 기여한 낙하산 인사의 등장, 이로 인한 비전문적인 구단 운영, 방만한 운영에 따른 경영 위기, 그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시 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지원을 구하고 반대급부에 의해 문제가 악순환되는 상황이었다.

### 시도민 구단의 현재

성남FC 이야기를 해보자. 9월 이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주도하고 있는 두산건설과 성남FC, 그리고 구 성남시 권력으로 연결되는 수사는 성남시 소재의 네이버, 차병원 등으로 확대되었다. 그 중심인 성남FC는 구단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받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다. 끝내 팀은 하위 리그로 추락했다. 여기서 검찰 수사를 논평할 생각은 없다. 조만간 수사와 기소, 재판으로 어떤 판단이 이뤄질 것이므로 예단적 논평은 잠시 미뤄도 괜찮다. 다만, 우선 두 가지 걱정이 앞선다.

범죄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각 구단이 지역 기반 기업과 축구 발전을 위한 공동 업무를 전개하는 과정이 매우 위축될 것이다. 구단 실무진 차원에서 특히 그러하다. 지역 기반 기업이나 단체를 적극적으로 교섭해야 하는 실무진으로서 자신들의 행위가 장차 어떤 상황에 의하여 범죄 또는 최소한 정치적으로 오해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옳지만, 나중에는 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위에서 시키는' 업무만 수행하는 수세적인 분위기가 11개에 달하는 시도민 구단 전체에 작동할 것이다.

“ 구단이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관계망으로 작동한다면 그 어떤 단체장이 감히 매각을 운운하겠는가 ”

다음으로 검찰 수사 전개 초기에서 성남FC 구단주인 신상진 성남시장이 '구단 매각'을 언급했다는 점이 다. 팬들의 항의와 일부 지역 여론의 비판으로 애초의 구단 매각 발언을 수정하는 듯하지만 검찰 수사에 더하여 이른바 '혈세 투입'과 '연고 기능 상실'을 이유로 강하게 걸었던 매각 드라이브의 여파는 남아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또한 재정이 열악한 구단을 전부 기업 축구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그는 경남도지사 재직 시절에도 경남FC가 2부 리그로 강등되자 구단을 해체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렇게 단체장의 결단으로 구단의 존폐마저 언급될 정도라면, 이는 일차적으로 구단 역사와 팬들의 열정을 도외시하는 단체장의 책임이지만 동시에 구단을 지역 정치의 하위 수단 정도로 '발전'시켜온 프로축구계 전체의 역량 문제도 있다. 여전히 지역연고제는 취약한 상태고 승강제는 보완할 점이 많다. 2022년 시즌부터 경기 중계권료의 산정과 마케팅 방식에 변화를 도모하였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 팬과 지역사회의 동반자, K리그

모든 위기의 타개책을 팬과 지역사회가 같이 전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팬과 지역사회를 마케팅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축구라는 문화의 공동 생산자이자 함께 비를 맞고 열광하는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 특히 시도민 구단은 지역사회의 지친 삶으로 들어가야 한다. 단순히 연말에 자선 봉사를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시도민 구단이 있는 11개 지역은 다양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축구가, 프로스포츠가, 지역 구단이 지역사회의 내면으로 들어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꿈을 꾸고 눈물짓는 동반자로 리셋(Reset)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정부의 '문화도시' 사업을 보면 지자체와 지역활동가, 문화기획자와 예술가,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삶의 관계망을 회복하고 다양한 지역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수년에 걸쳐 여러 가지 작업을 실천한다. 구단 역시 동참하거나 적어도 같은 계획과 열정을 쏟아야 한다. 그래야지만 시도민들이 구단을 인식하고 축구를 기대한다. 그렇게 될 때 당장 재정 문제나 지역 정치의 판도에 따라 지원 규모를 줄인다거나 구단을 매각한다는 식의 갑작스러운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축구와 구단이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관계망으로 작동한다면, 그래서 시도민들이 축구와 구단을 지역사회의 소중한 문화로 여기고 함께 즐기기 위해 모이는 아름다운 풍경이 전개된다면 그 어떤 단체장이 감히 매각을 운운하겠는가. 마케팅을 위한 마케팅을 중단하고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문화적 플랫폼으로 구단과 축구를 리셋해야 한다. ☞



2022년 10월 3일, 경기도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2' 성남 FC와 수원 삼성의 경기에서 성남 이재원, 연제운, 김민혁이 수원의 페널티킥 선전에 아쉬워하고 있다

글을 쓴 정윤수는 문화비평지 <계간 리뷰> 편집위원, MBC 축구 해설위원, 스포츠윤리센터 이사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성공회대 문화대학원에서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스포츠를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축구장을 보호하라>, <서울의 축구>, <스포츠, 인권을 만나다>(공저) 등이 있다.



'남북 단일팀 역사 돌아보기'는 남북 스포츠 교류에 있어 단일팀 구성의 역사와 배경을 시대별로 짚어보고자 마련한 코너입니다.



1991년 남북 단일팀 성사기

# 남북 최초의 단일팀 실현



1991년 4월, 일본 지바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은 중국의 벽을 깨고 여자 단체전에서 우승했다

흔히 남북 단일팀 구성 문제를 남한이 먼저 제안하고 북한이 거부했다고 알고 있다.

사실은 정반대다. 1950년 말부터 북한은 남한에 단일팀 구성을 일관성 있게 제안해왔고, 남한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거부해왔다. 이러한 기조가 처음으로 바뀐 계기는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다. 이후부터 남북의 입장은 바뀌었다.



1989년 11월 16일, 남북 대표들은 합의한 단일팀 단기를 걸고 베이징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참가 관련 제4차 남북체육회담을 가졌다

### 88 서울올림픽 이후 남북의 만남

88 서울올림픽을 거치며 북한은 자신들이 요구한 것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남한을 향해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의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을 또다시 제안했다. 사뭇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오히려 남한의 호의적인 제스처가 있고 북한이 거절하는 모습이 어울릴 것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무엇에라도 쫓기듯이 단일팀 구성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남한 정부도 88 서울올림픽을 치르며 북한의 불참을 못내 아쉬워했다.

1988년 7·7 선언에서 남북 관계 개선과 교류 발전을 제안해 놓은 터라 북한의 제안을 야박하게 거절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그래서 북한의 단일팀 구성 제안을 곧바로 응하고 1989년 3월에 첫 남북체육회담을 시작했다.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은 1989년 3월부터 본 회담 총 9차, 실무 회담 6차에 이르는 역대급 회담 진전이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과거부터 유지되어 온 남 개별팀 전략과 북 단일팀 전략이 상충해 합의가 결렬되었다. 1차 회담부터 5차 회담까지의 회담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1차 회담(1989.3.9)에서 남북은 단기로 정한 아리랑을 함께 들으며 감상에 젖기도 했다. 과거와 다르게 회담 초반에 정치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고 오로지 단일팀 구성 문제에만 집중했다.

3차 회담(1989.10.20)에서는 처음으로 흰색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지도 모양의 단일기가 탄생했다. 이때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표기하기로 합의했다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4차 회담(1889.11.16)에서는 단일팀 명칭을 코리아(KOREA)로 결정했다. 그러나 4차 회담 전후로 남한 내부에서 북한의 체육회담의 저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다른 고위급 회담이나 군사회담은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체육회담에서는 유독 정치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여러 의제에서 양보하는 태도를 보여 의구심을 가졌다.

이때를 기점으로 개별팀 참가를 고려한 남한의 회담 전략이 또다시 부상했다. 실제로 6차 회담(1989.12.22)부터 달라진 분위기를 볼 수 있다. 남측이 제시한 '선 체육 교류 후 합의서 작성'이라는 회담 방향에는 단일팀 구성 이전에 체육 교류를 통해 북한을 개방하게 만들겠다는 명분이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회담 의제를 어렵게 만들고 회담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이에 북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일단 지금까지 서로 합의한 10개 항목을 들어 합의서를 작성하면 체육 교류의 길도 트이게 될 것이라



고 주장했다. 또 남측은 새로운 부칙을 제시하며 다시 부칙 적용을 위한 회담을 이어가자고 했다. 북측은 회담 의제를 합의해 주면 남측이 또 다른 수정안을 들고나와 회담을 어렵게 만든다며 단일팀 구성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9차 회담(1990.2.7)에서 북한은 더 이상의 회담은 의미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남한도 개별팀 참가 보장에 방점을 찍으면서 회담이 결렬되었다. 이후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이 진행된 경기장에서는 회담에서 결정된 아리랑과 단일기를 이용한 민간 주도의 남북 공동 응원이 펼쳐졌다. 민간 영역에서는 통일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었다. 9월 18일에 북측의 김유순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모든 국제 체육 경기에서 북과 남이 유일 팀으로 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9월 말에 남한의 장충식 단장과 북한의 강득춘 단장은 베이징에서 비공식 만남을 갖고 그동안 남측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선 체육 교류를 위해 남북통일 축구대회를 개최하자고 합의를 봤다.

이후 1990년 10월, 남과 북은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남북통일 축구 경기를 했다. 바로 이어서 남측은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여러 국제대회에서 단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을 하자는 역사

적인 남북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불과 몇 개월 전, 얼굴 붉히며 마주했던 남북은 베이징에서 다시 만나 전향적인 태도로 남북 축구를 성사시켰다. 선 단일팀 후 체육 교류의 입장이었던 북한의 태도가 바뀐 것이다. 당시 국제 정세는 북한에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동구권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을 목도한 북한으로서는 체제의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과의 교류 협력과 관계 발전에 더욱 정성을 쏟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한 배경에는 노태우 정부의 7·7선언과 북방 정책이 힘을 발휘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그러했고, 경제 협력 차원에서도 김우중, 정주영 등 남측 기업인들의 방북이 이어지며 남북 경제 협력의 분위기가 싹트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1990년 11월 29일, 제1차 남북 체육회담이 통일각에서 열렸다.

북측은 지난 회담 결렬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도 단일팀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남측은 통일 축구의 정례화와 선 체육 교류와 후 단일팀 구성을 제안하며 역시나 팽팽한 주장들이 오갔다.



1990년 10월 11일 평양 룡라도 5·1경기장에서 남북은 통일 축구를 매개로 한민족임을 확인했다

### 체육청소년부 장관 박철언의 등장

그렇게 1차 회담이 성과를 보이지 않자 노태우 전 대통령은 당시 대북 특사로 활동했던 박철언을 12월 말에 체육청소년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1991년 1월 15일 2차 회담부터는 공식적으로 회담 기조가 북한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전략으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 주도로 회담 기조가 정해졌다면 처음으로 무계중심이 체육청소년부로 이동한 것이다. 그래서 한때 안기부와 체육청소년부 사이의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박철언 장관은 북한 대표 한시해와 1985년부터 40여 차례 비밀 접촉을 지속하며 다른 한 축에서 남북 신뢰를 쌓아왔다. 1989년 7월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임수경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가 불법 방북으로 룡라도 5·1경기장에 입장했을 때, 박철언 장관은 김일성 주석과 함께 그 현장에서 임 대표의 모습을 지켜보았을 만큼 남북은 비밀리에 만남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었다. 동구 공산권의 붕괴에 따른 세계사적 변화는 북한을 더욱 긴장 상황으로 몰아넣었고, 그런 상황에서 박철언 장관은 한반도의 전체 이익을 생각할 때 북한의 붕괴가 아니라 공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2차 회담에 나온 북측 대표의 인사말에서도 박철언 장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 보였다.<sup>1)</sup> 마지막 4차 회담(1991.2.12)에서는 북측이 주장했던 선수 훈련과 선수단 당장 문제를 전면 수용하며 최종 합의를 끌어냈다. 이처럼 북측 제안을 모두 받아들이며 분단 46년, 체육회담이 시작된 지 28년 만에 남북이 처음으로 국제대회에서 단일팀 구성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 역사적인 남북 단일팀 성사

1991년 4월 일본 지바에서는 그동안 갈등과 대결 관계로 지낸 민단과 조총련 단체가 함께 모여 남북 단일팀 선수단 환영식과 공동 응원 방안에 대해 토의를 하는 등 분단 후 처음으로 해외 동포들의 협조가 이루어졌다.

선수단이 현지에 도착하자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이어졌다. 남북의 관중들은 단일기를 흔들고 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뜨거운 응원을 펼쳐나갔다. 경기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여자 단체전에서 현정

화 리분희 복식조가 중국을 꺾었고, 마지막 단식에서도 북한의 유순복 선수가 중국 선수를 이기자 체육관을 메운 관중과 선수, 감독 모두 일제히 합성을 지르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합창했다. 이 모든 과정과 현실을 누군가는 ‘작은 통일’이라고 표현했다. 남과 북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동포들 모두가 장면에 몽클한 감정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6월에 진행된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서는 남북 단일팀 선수들이 8강까지 가는 선전을 보여 이 또한 남북이 몽치면 더 큰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경기였다. 해방 후 처음으로 구성된 단일팀 구성의 역사는 가히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91년 상반기 내내 이러한 감격과 감흥은 지속되었다.

### 남북 단일팀의 뒤바뀐 입장

모든 단일팀 행사가 끝난 7월, 남한 정부는 체육청소년부 주도로 남북 체육 교류 및 협력 3단계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마지막 3단계에는 쌍방의 기존 체육기구보다 상위의 단일 체육조직체를 창설하자는 안이 있었다. 그리고 모든 국제대회 단일팀 참가, 국제체육행사 공동 주최, 국제체육기구에 단일 조직체로 재가입 등 매우 전향적인 방안들을 마련했다.

다가올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이 8월 17일에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8월 4일 북한의 유도 선수 이창수가 남한으로 망명하면서 남북 체육 교류는 다시 경색 국면으로 바뀌었다. 북한은 이 선수를 돌려보내라고 요구했고, 남한은 다시 돌려보낼 수는 없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모든 체육회담을 거부했고, 더 이상의 회담은 없었다. 12월 말 그동안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해 노력한 박철언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1년 만에 물러나고 육사 출신 이진삼이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그 이후에도 이 장관은 남북 체육 교류와 단일팀 구성을 위한 북한과의 접촉을 이어갔지만 북한은 과거처럼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더 이상 남한을 향해 지금까지도 단일팀 구성을 먼저 제안하지 않았다. 1991년 남북은 체육 교류 협력의 가능성과 통일로 나아가는 희망을 보았지만, 한동안 그런 희망의 메시지는 볼 수 없었다.<sup>2)</sup>

글을 쓴 최진환은 체육 교사로 재직 중이며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구 논문으로는 <남북 스포츠 분단의 역사적 함의>, <88 서울올림픽 공동주최 논쟁에 관한 연구>, <남북한 체육교육과정 비교연구>, <1991년 남북단일팀 성사와 단절에 관한 고찰> 등이 있다.

1) 이 글은 박철언 전 장관과의 인터뷰와 회고록, 그리고 국가기록원에서 참고한 남북 체육 회담록을 참고하여 기술되었음을 밝힌다.



# 다 같이 차고 달리자, 킥런볼!

킥런볼(Kickrun Ball)은 이름 그대로 공(Ball)을 차고(Kick) 달리는(Run) 뉴스포츠로 공격과 수비를 통해 승패를 가린다. 공격팀 선수 전원과 수비팀 선수 전원이 참여해야만 하는 경기 특성상 소외되는 선수가 없다. 참여 선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킥런볼을 알아본다.

### 발야구와 럭비를 혼합한 뉴스포츠

여느 뉴스포츠 종목과 마찬가지로 킥런볼은 두 가지 종목이 결합해 만들어졌다. 발야구와 럭비의 각 경기 방법과 기술이 결합해 탄생한 킥런볼은 높은 수준의 운동 능력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남녀 혼성 경기로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 경기 방법이 복잡하지 않아 짧은 시간의 연습만으로도 충분히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무엇보다 다른 뉴스포츠 종목과 비교했을 때 킥런볼은 공격팀과 수비팀의 모든 선수가 참여해야만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운동 능력은 물론 협동심까지 기를 수 있다. 기본적인 경기 방식은 발야구와 비슷하다. 양 팀이 7회 동안 공격팀과 수비팀으로 나뉘어 3아웃 안에 득점을 따내는 형태다. 공격팀은 공격자가 공을 찬 후 공격자 대기 구역에 있는 같은 팀 선수를 돌고, 공격팀 베이스를 밟으면 득점한다. 공격팀 선수들이 베이스로 돌아오는 동안 수비팀은 공을 잡아 선수 간 패스를 통해 수비팀 베이스까지 도착했을 때 점수를 얻을 수 있다.☞



©Shutterstock

### 경기 방법

- ① 공격팀 선수는 공을 찬다.(이때, 남자는 3바퀴, 여자는 2바퀴를 돈다.)
- ② 대기 구역에 있는 공격팀원들을 돌아 공격팀 베이스로 돌아온다.
- ③ 수비팀은 공격팀 선수가 킥한 공을 잡는다.
- ④ 수비팀 전원은 공을 잡은 지점에서 일렬로 서서(D1~D10) 다리 사이로 패스해 공을 이동시킨다.
- ⑤ 마지막으로 공을 전달받은 수비수는 직접 달리거나 다른 선수에게 패스를 해 수비용 베이스를 밟는다.

### 킥런볼의 포지션



### 경기 규칙

- ① 팀당 10명의 선수가 7번의 공격과 수비를 진행한다.
- ② 공격팀에서 3명의 선수가 아웃되면 공수교대가 이뤄진다.
- ③ 심판은 주심 1명, 선심 2명, 그라운드심 1명으로 총 4명이다.
- ④ 공격수가 킥한 공이 파울존 안쪽(홈 기준 10m 이내) 지점에 떨어지거나 사이드라인 바깥쪽으로 떨어지면 파울이다.
- ⑤ 공격팀이 수비팀 베이스를, 수비팀이 공격팀 베이스를 밟는 경우 아웃이다.

### 공격 기술

- 토 킥(Toe Kick)  
공이 땅에 떨어진 후 튀어 오를 때, 바운드 효과가 커지도록 발끝으로 공을 차는 기술
- 인스텝 킥(Instep Kick)  
힘을 실어 공을 멀리 보내기 위해 발등으로 공을 차는 기술
- 스피ن 킥(Spin Kick)  
공의 측면을 차서 회전력을 강화하는 기술

### 킥런볼의 공격



### 수비 기술

- 오버핸드 패스(Overhand Pass)  
자신의 어깨보다 높은 위치에서 공을 던져 장거리 패스를 할 때 사용하는 기술
- 투 핸드 언더 패스(Two Hand Under Pass)  
가까운 거리에서 양손을 사용해 허리 높이에서 패스할 때 사용하는 기술

### 킥런볼의 수비





# 운동 중 발생한 급성 손상, 어떻게 대처할까?

운동이나 경기 중 발생하는 부상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위험하다. 보존적 치료로 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경미한 부상이라도 초기에 적절한 처치를 해줘야 회복 기간이 줄어듦과 빠른 복귀가 가능하다.



©Shutterstock

## 운동 종목에 따라 달라지는 부상 종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운동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 선호하는 운동을 통해 운동 중 발생하는 부상의 종류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축구, 걷기, 야구, 등산, 수영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다. 몸매 관리나 다이어트를 위해 하는 운동의 경우 다소 차이가 있으나 헬스나 PT(Personal Training)의 선호도가 가장 높고 요가, 달리기, 수영, 등산, 자전거와 같은 개인 운동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코로나 발생 후에는 다양한 운동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들었다. 운동 목적에 상관없이 홈트레이닝과 걷기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는 운동에 대한 선호도가 이전처럼 다양한 스포츠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홈트레이닝을 즐기거나 혼자 걷기를 즐겨하던 분위기에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단체 활동도 다양해진다면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의 비율도 높아진다. 축구의 경우 발목이나 무릎 인대의 손상, 근육 손상이 흔하고 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야구의 경우 어깨나 팔꿈치, 손목, 무릎 등의 인대, 건, 근육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신체 접촉이 많은 단체 운동의 경우 타박상이 자주 발생한다.

## 병원 가야 할지 고민될 때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격렬한 운동 경기 중이라면 부상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부상을 인식하는 순간에는 냉철한 판

단이 필요하다. 부상이 심각하지 않다면 대개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심각한 부상은 아닐 거야’라는 근거 없는 긍정의 믿음을 우선 가지게 된다. 만약 부상 초기에 느껴지는 통증이 극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쉽게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혹은 육안으로 볼 때 피부의 외상이 심하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구급차를 불러 최대한 빨리 내원하는 것이 현명하다. 골절이나 탈골 등 구조적인 손상이 명백하다면 부상 부위를 최대한 고정해 움직임으로 인한 부상의 악화를 방지하고 출혈이 있다면 최대한 지혈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동한다. 특히 척추 부위의 손상이 의심된다면 선불리 처치를 하기보다는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안정을 취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반면 육안으로 보기에 심각한 손상이 확인되지 않고 통증이 애매한 부상의 경우 판단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우선 부상 부위를 눈으로 살펴 피부에 외상은 없는지, 멍이 들거나 붓지 않는지 유심히 살펴본다. 또한 손으로 조심히 부상 부위를 눌러봐서 압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특정 부위에서 압통이 있다면 그 부위의 미세 골절이나 결합 조직의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관절 부위 부상이라면 조심히 관절의 가동 범위가 온전한지 살펴본다. 스스로 관절을 움직여봐서 가동 범위의 제한은 없는지 혹은 통증이나 압통, 감각 이상 내지 불안정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부상 부위의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확인 중 조금이라도 이상한 조짐이 있거나 해당 부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기도 증상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괜찮아지겠지’라는 믿음은 가

## 부상에 따른 초기 처치



### ① 인대의 염좌, 파열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결합 조직이다. 주로 관절 부위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인대가 완전히 끊어지는 완전 파열의 경우 보존적 치료와 더불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인대와 같은 연부 조직의 급성 손상 시 초기 24시간의 처치가 매우 중요하다. 대개는 혈관 손상도 동반돼 출혈이 생기는데 이로 인한 부종과 이차적인 저산소 손상, 조직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한 네 가지 방법을 줄여서 흔히 RICE로 칭한다.

### ② 근육의 타박상, 염좌, 파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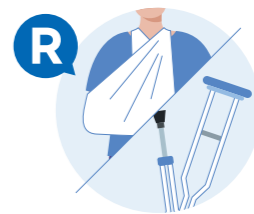
근육 손상 또한 스포츠에서 흔한 손상 중의 하나로 전체 스포츠 손상의 10~55% 정도를 차지한다. 근육 타박상은 신체 접촉이나 장비와의 충돌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타박상 역시 출혈과 부종을 동반하기 때문에 연부 조직 손상의 초기 대응과 대동소이하다. 더 심한 손상인 염좌나 파열은 햄스트링이나 대퇴사두근, 비복근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이때도 인대 손상과 같이 출혈, 부종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초기 얼음찜질과 압박, 초기 수일간의 움직임 제한이 필요하며 마사지의 경우 초기 48시간 이내에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HARM 수칙**

또한, 손상 초기 72시간 동안은 하지 말아야 할 해로운(HARM) 수칙들도 있다.

**Heat & rub** (열과 문지르기)    **Alcohol** (음주)    **Running** (달리기)    **Massage** (마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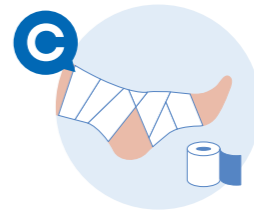
### RICE 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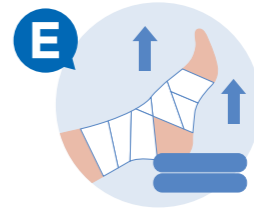
**Rest (안정)**  
부상 부위의 활동을 멈추어 추가적인 손상을 막도록 한다. 하지 손상에는 목발을 이용하고 상지 손상에는 삼각건 등을 통해 충분히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Ice (얼음)**  
손상 직후 얼음찜질은 조직의 대사를 낮춰 부종이나 혈종, 염증을 감소시킨다. 표준 방법은 손상 직후 20분간의 얼음찜질을 2시간 간격을 두고 세 번 진행하는 것이다.



**Compression (압박)**  
손상 부위의 압박은 부종과 출혈을 감소시킨다. 얼음찜질을 하는 동안이나 이후에 실시한다.



**Elevation (거상)**  
손상된 부위의 사지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면 정수압을 낮추어 부종을 예방할 수 있다.

지지 않는 편이 낫다. 경미한 부상이든, 병원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좀 더 심각한 부상이든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결국은 우리 몸의 조직이 손상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상받은 조직에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며 부종이나 통증이 수반되거나 출혈이 동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초기에 적절하게 처치를 한다면 부상의 악화를 막고 빠른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부상은 반드시 찾아온다. 눈 질끈 감고 ‘난 괜찮을 거야’라는 근거 없는 믿음보다는 적절한 초기 처치로 더 큰 부상의 위험을 낮추길 바란다. ☘

글을 쓴 오성관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웨이트 트레이닝 경력 21년의 취미 운동가다. 백세시대를 맞이하며 반드시 알아야 할 바른 건강법, 바른 운동법을 알리고자 SNS, 미디어, 헬스케어 분야 등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 아마조네스의 12번째 선수를 소개합니다

서포터즈 단장 윤제욱&서포터즈 단원 소영환

축구팀이 11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고 있다면 큰 오산. 서울시청 여자축구팀 아마조네스에는 12번째 선수가 함께 전 경기를 뛰고 있다. 그라운드 밖에서 선수들에게 힘찬 응원과 그득한 사랑을 보내주는 12번째 선수. 바로 서포터즈다.



**안녕하세요. 독자들분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윤제욱** • 안녕하세요. 서울시청 여자축구팀 아마조네스 서포터즈 윤제욱입니다. 우리 서포터즈는 아마조네스가 효창운동장을 홈 구장으로 사용했던 시절인 2019년 7월에 창단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소영환** • 안녕하세요. 소영환입니다. 저는 서포터즈가 만들어진 그해 겨울인 11월에 서포터즈에 가입했습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은 성남이지만 아마조네스의 매력에 빠져 성남과 서울을 오가며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조네스 서포터즈는 어떻게 창단하게 되었나요?**

**윤제욱** • 서포터즈가 설립됐던 2019년도 당시, 여자 축구가 부흥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경기장을 찾았지만 남자축구팀과 달리 서포터즈가 존재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자 축구도 남자 축구와 똑같은 축구인데 이 선수들은 왜 응원 받지 못하지?’라는 물음에서 시작됐어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했고, 마음 맞는 분들과 서포터즈 결성을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팬이 경기장을 가득 채운다면 선수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됐죠.

**서울시청 여자축구팀 아마조네스를 응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소영환** • 지금은 은퇴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주수진 선수가 서울

시청팀으로 이적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마조네스를 응원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주수진 선수를 보기 위해 서포터즈로 활동했는데 점점 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아마조네스 서포터즈의 경우, 굉장히 활동적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기도 했어요. 다른 서포터즈 구단에 비해 활동적인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윤제욱** • 사실 저도 영환님과 마찬가지로 실제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에요. 서포터즈가 세워지기 전인 2017년도부터 여자축구팀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해외 원정도 많이 다녀왔어요. 남자축구팀은 서포터즈 형성이 잘 되어 있는데다가 규모도 크잖아요. 어디에선가 여자축구팀 선수들은 응원 받은 기억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나부터 시작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윤제욱** • 온라인 외에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서포터즈가 10명 정도 돼요. 경기가 있을 때, 경기장에서 응원하는 고정 멤버 3명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뤄집니다. 현장에서 옆에 계신 영환님께 서 많이 애써주십니다.

**소영환** • (웃음) 감사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모든 서포터즈가 서울시청 여자축구팀을 위해 함께하고 계세요. 외에도 공식 SNS로 활용하는 서포터즈 인스타그램 계정은 약 450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조네스 서포터즈만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윤제욱 • 응원 문화입니다. 아마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 흥음을 사용한 건 우리 아마조네스가 여자 축구 최초일 거예요. 물론 경기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경기장 밖, 선수단 버스 앞에서 축하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며 승리의 순간을 즐기는 전통도 있습니다. 이런 퍼포먼스는 선수단에 게 조금 더 사기 붙여넣는다고 생각합니다.

소영환 • 다른 구단 서포터즈와 달리 서포터즈 용품을 제작하고 나눠줍니다. 선수를 사랑하고, 팀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선수별 걸개를 제작하기도 했고, 마스크에 아마조네스 로고도 입혔습니다. 머플러도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여 팀 응원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분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윤제욱 •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조네스는 WK리그 구단 중 유일하게 팬이 SNS를 운영하는 구단입니다. 구단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선수단 협조도 상당히 좋아 가능한 일입니다. 서포터즈와 구단이 직접 소통하여 이적 및 신입 선수 정보도 실시간 업로드하고, 소속 선수들과는 선수 애장품 증정 이벤트와 같이 팬과 함께할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해 선수와 팬이 가깝게 지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돼 지금까지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아마조네스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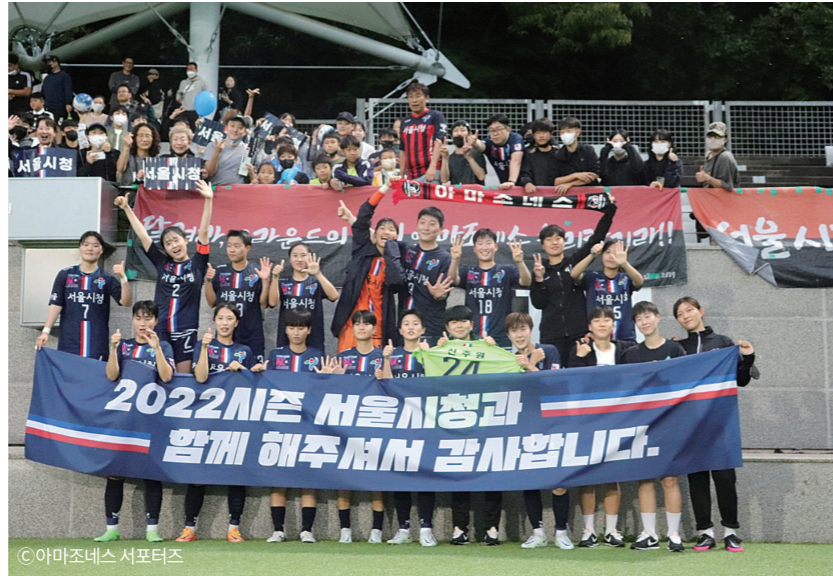
소영환 • 민원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평일 저녁에 경기하다 보니 경기장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이 응원 소리에 민원을 상당히 넣습니다. 북소리, 응원소리에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아쉽습니다.

윤제욱 • 맞아요. 경기장으로 경찰이 출동한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도 시민들이 이전보다 많이 이해해주셔서 나아졌어요. 그런데 다른 경기장으로 옮기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민원이 또 발생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점이 반복될까 조심스럽기도 해요.

팬으로서 서울시청 여자축구팀의 매력을 자랑한다면요?

소영환 • 경기 시간 내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뛰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선수단입니다. 특히 올해 경주한수원과의 4대2 경기에서 거의 90분이 다 났을 때 버저비터처럼 골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아마조네스의 매력이지 않을까요?

윤제욱 • 경기를 직관하신 분이라면 모두 아실 거예요. 서울시청



아마조네스 서포터즈가 지난 10월 3일, 서울월드컵 보조경기장에서 올 시즌 홈 구장 마지막 경기를 치른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아마조네스 서포터즈 인스타그램 (@amazones2019)

“ 우리 서포터즈는 늘 골대 뒤에 있는 존재입니다 ”



윤제욱 서포터즈 단장 (2019~현재)

여자축구팀은 다른 팀과 다르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가 있어요. 이 모습에서 가장 큰 매력을 느꼈고, 같은 이유로 경기를 한 번 보신 분들은 다음 경기도 응원하러 오시더라고요. 많은 분이 망설이지 마시고 오셔서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조네스 선수단 중 '최애(가장 사랑하는)' 선수가 있나요?

소영환 • 팬들에게 '심스타'라고 불리는 선수죠. 우리 서울시청 여자축구팀의 캡틴인 심서연 선수를 가장 좋아합니다. 심서연 선수는 90분 내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수입니다. 마치 포기란 없는 선수인 것 같아요. 경기 끝까지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선수예요.

윤제욱 • 김은솔 선수입니다. 김은솔 선수는 프로리그에 처음 우리 팀으로 들어왔어요. 가장 어린 나이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주전으로 뛰고 있고, 팀에서 언니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에 반했어요. 물론 우리 팀 모두가 최애 선수지만, 현재로서는 김은솔 선수를 가장 응원합니다.

팬으로서 WK리그가 발전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윤제욱 • WK리그 경기는 평일 저녁 경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6시 이후에 퇴근하기 때문에 경기 직관하러 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내고 경기를 보러 오는 실정이고요. 국제 대회 성적도 중요하지만 주말 경기를 열여 많은 분이 와서 보고 즐기는 환경이 제공되어야만 리그도 클 수 있고, 관중의 관심도 늘 거로 생각합니다.

소영환 • 주말 경기가 가장 좋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라운드 당 한 팀씩이라도 금요일에 경기가 치러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청 여자축구팀 선수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소영환 • 팀의 성적보다도 팀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서포터즈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수단이 90분 내내 최선을 다해 끝까지 뛰는 모습을 좋아합니다. 끝까지 응원할게요, 아마조네스! 내년 시즌도 잘 부탁드립니다.

윤제욱 • 누구보다도 선수단이 저희 진심을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포터즈는 늘 골대 뒤에 있는 존재입니다. 경기장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조네스 파이팅! ⚡



소영환 서포터즈 단원 (2019~현재)

“ 아마조네스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뛰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선수단입니다 ”



'아무튼 스포츠'는 스포츠와 관련 문화, 트렌드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 세상을 바꾸는 '착한 스포츠'

스포츠는 그 인기만큼이나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 이를 잘 활용하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번에는 사회공헌 캠페인을 통해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데 이바지하는 '착한 스포츠'의 면면을 살펴보려 한다.

##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스포츠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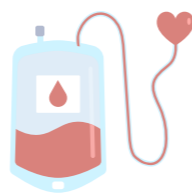
각 종목 리그를 운영하는 스포츠 단체들과 여기에 속한 구단들은 팬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애쓴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부족한 일면을 일깨우고 팬들의 인식 전환과 동참을 호소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세계적인 축구선수 다비드 루이스, 헐크 등을 배출한 브라질의 명문 구단 EC 비토리아(Vitoria)는 100년 넘게 빨간색과 검은색이 섞인 줄무늬 유니폼을 고수해 왔다. 그런데 2012년 어느 날 갑자기 유니폼에서 빨간색이 사라졌고 그 자리를 하얀색 줄무늬가 대신했다. 팬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My Blood is Red & Black' 캠페인을 시작한 것이다.

EC 비토리아의 연고지인 브라질 북동부 바히아(Bahia) 주의 혈액은행은 늘 혈액 부족에 시달렸고, 수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경우가 상당했다. 이러한 상황을 널리 알리고 헌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구단은 유니폼의 붉은색을 흰색으로 바꿨다. 이후 사람들이 SNS에 헌혈 인증 사진을 올리고 그 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마다 하얀색 줄무늬를 한 칸

씩 빨간색으로 채웠다. 덕분에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세계 축구팬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해 선수들과 팬들은 50일 만에 본래 유니폼 색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한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16년부터 장기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K리그 생명나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의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5,000명에 달한다. 하지만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는 전 국민의 3% 수준이며 하루 평균 5.2명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숨을 거둔다. 선진국들의 사정은 사뭇 다르다.

미국과 영국은 각각 국민의 61%, 38%가 장기 기증 서약서를 작성했다. K리그를 운영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장기 기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연맹 및 구단 임직원, 심판, 선수, 지도자 1,200여 명이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장에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펼치는 동시에 축구 팬을 대상으로 기증 희망 등록 접수 활동 등을 진행했다. 덕분에 2019년 선수와 관중 400여 명이 장기 기증에 서약했으며 그 행렬은 엔데믹에 들어선 올해에도 줄곧 이어지고 있다.



## My Blood is Red & Black 캠페인 영상



## '건강한 지구 만들기'에 기여하는 스포츠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은 지속가능한 스포츠를 위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덕목이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은 쓰레기 줄이기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프로스포츠협회는 2019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경기장 일회용 컵 줄이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 기간 동안 프로스포츠 경기가 열린 전국 12개 축구장과 야구장에서 팬들에게 다회용 컵 16만3,000개를 선물했다. 일본야구기구(NPB)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아예 야구를 일부 조정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그린 베이스볼 프로젝트'다. 야구 경기 시간을 12분 줄이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약 37만6,000kWh의 사용 전력을 아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209톤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본야구기구는 공수 교체 시간을 2분 15초로, 투구 시간은 15초로 제한하는 등 이른바 '스피드업 11개 조항'을 만들어 선수들에게 준수하도록 했는데 덕분에 시행 첫해 경기 시간을 6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17톤 줄일 수 있었다. 밤나무 300만 그루를 심은 것과 동일한 효과다.

깨끗하고 건강한 지구를 위한 스포츠계의 움직임은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2018년 스포츠의 영향력을 활용해 친환경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협정인 '스포츠 기후 행동 협정'을 마련했는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국제축구연맹(FIFA), 미국프로농구(NBA), 스페인 프리메라리가(LA LIGA), K리그, 뉴욕 양키스 등 전 세계 341개 스포츠 리그·단체·구단이 가입했다. 지난 4월에는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최초로 대한당구연맹이 이 협정에 가입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렇듯 스포츠는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트리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알게 모르게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스포츠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캠페인에 관심을 기울이고 나아가 직접 참여한다면 스포츠의 즐거움과 보람이 한층 커질 것이다. ✨

글을 쓴 강진우는 객관적인 정보와 색다른 시선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사와 문화칼럼을 쓴다.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현안과 분야에 몰입한다. 소설 <선물>, 자기계발서 <칼럼니스트로 먹고 살기>를 집필했다.





전국체육대회 다시 보기

# 3년 만에 돌아온 진짜 'National Sports Festival' 선수들의 함성으로 가득했던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열전의 현장

지난 10월 7일(금), 코로나-19라는 칠혹 같은 어둠을 지나  
3년 만에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돼 13일(목)까지 7일간의 열전을 펼쳤습니다.

이번 대회에 총 2,085명의 선수를 파견한 서울특별시 선수단은  
금메달 108개, 은메달 104개, 동메달 117개 총 51,356점이라는 성적으로  
경기도에 이어 종합 2위(고등부 종합 1위)를 달성했습니다.

고등부만 개최됐던 제102회 대회와는 다르게 일반부 및 대학부까지  
안전한 모습의 전국체육대회로서 그동안 흘린 땀에 대한 한이라도 풀 듯  
우리 선수들의 눈에는 오직 승리를 향한 열정만이 가득했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박원하 회장(우)과 임흥준 사무처장(좌)이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으로부터 종합 2위 시상을 수여 받고 있다



핸드볼 여자 일반부 경기에서 서울시청 조수연 선수가 돌파 후 슈트를 시도하고 있다  
·서울시청 여자 핸드볼팀은 강원(삼척시청)에 25대23으로 승리하며 5년 만에 전국체육대회 금메달을 따냈다



탁구 남자 고등부 단체전 경기에서  
대광고등학교 문세연 선수가 백드라이브를 시도하고 있다  
·대광고등학교는 경상북도(두호고등학교)에  
경기 스코어 4대1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따냈다



소프트볼 여자 고등부 신정고등학교 선수들이 밝은 얼굴로 전국체육대회 우승을 만끽하고 있다  
·신정고등학교는 충청북도(충북대사범부설고등학교)에 4대1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따냈다





농구 남자 고등부 경기에서  
 용산고등학교 이재형 선수가 패스를 시도하고 있다  
 ·용산고등학교는 경기도(삼실상업고등학교)에  
 69대66으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따냈다



철인3종 일반부 혼성릴레이에서  
 서울시청 김희진 선수가 사이클 경기를 펼치고 있다  
 ·서울시청 철인3종팀은 1시간25분7초의 기록으로  
 경상남도(통영시청)에 17초를 앞서며 금메달을 따냈다



산악 여자 일반부 스포츠클라이밍에서  
 서울시청 서채현 선수가 볼더링 경기를 펼치고 있다  
 ·서울시청 산악팀 서채현 선수는 1t2z 12성적으로 동메달을 따냈다



태권도 여자 일반부 경기에서 한국체육대학교 김유진 선수가 돌려차기를 시도하고 있다  
 김유진 선수는 광주광역시(조선대학교) 김민경 선수에게 27대1로 완승하며 금메달을 따냈다



서울시청 여자축구팀이 결승전 종료 후 시상식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시청 여자축구팀은 대회 첫 경기부터 강호 경상북도(경주한국수력원자력)를 4대2로 완파하는 저력을 보여주며 은메달을 따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뉴스



2022 서울시민 체육대축전 개최

지난 9월 17(토)~18일(일), 양일간 잠실실내 체육관 등 종목별 경기장에서 1,000만 서울시민의 체육축제 '2022 서울시민 체육대축전'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위기를 지나 3년 만에 하나된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오세훈 서울시장 및 본회 박원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으로 일

정이 진행되었으며, 23개 종목 11개 경기장에서 서울시 관내 25개 자치구 총 8,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서울시 최고의 생활체육인을 가리기 위한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2일간의 일정 끝에 우승은 서대문구, 준우승은 중랑구와 마포구, 3위는 영등포구, 강서구, 동작구가 차지했습니다.



서울시체육회 스포츠데이 개최

지난 9월 28일(수), 서울시체육회 스포츠데이가 개최됐습니다. 본회는 지난 6월부터 사무처 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직원 건강·복지 및 업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3시~6시를 스포츠의 날로 지정해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에는 서울시 체육정책과 배덕한 과장 등 서울시 관계자가 함께한 가운데 축구, 필라테스 등 스포츠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회는 오는 11월까지 스포츠의 날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참여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2022 서울 레이스(서울 달리기) 개최

지난 10월 9일(일) 서울시청 광장 일원에서 2022년 서울 레이스(서울 달리기)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와 동아일보의 주최 및 본회의 후원으로 개최되었으며, 행사 20주년을 맞이하여 청와대, 청계천, 광화문 등 서울의 랜드마크를 뛰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일정으로 추진됐습니다. 올해 행사는 오픈국제부, 하프, 10km 세 개 부문 총 1만2,000여명 선수 및 동호인이 참여했으며, 굿은 날씨가 무색하게 동행·매력 특별시라는 서울시의 슬로건에 걸맞게 함께하고 즐길거리가 넘치는 행사였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뉴스

2022 유소년 축구 왕중왕전 개최



지난 10월 8일(토) 용산구 소재 효창운동장에서 2022년 유소년 축구 왕중왕전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본회 주최, 서울시축구협회의 주관으로 대한축구협회에 선수등록 사실이 없는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유치부(6~7세) 및 초등부(8세)로 나누어 대회 운영이 이루어졌으며, 각 부문별 20개팀씩 총 40개팀 400여

명의 아이들이 참여하여 실력을 겨루는 축제의 한마당이었습니다. 대회 결과는 초등부에서 양천구 K-스포츠팀이, 유치부에서는 동대문구 토모FC팀이 1위를 차지했는데, 대회 결과와 관계 없이 운동장은 아이들을 응원 온 가족들과 아이들의 함박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울시체육회-(사)대한수의사회 업무협약

지난 9월 26일(월) 서울시체육회 회의실에서 서울시체육회-(사)대한수의사회 양 단체 간 업무협약식이 개최됐습니다. 본 협약은 동물 보호·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역할 실천 및 공동협력을 목적으로 추진됐는데, 본회는 박원하 회장, 임흥준 사무처장이, (사)대한수의사회에서는 허주형 회장, 박효철 미래신사업추진단장이 참석하여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발전해나갈 양 단체의 안녕을 위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2022 WTA 하나은행 코리아오픈 및 ATP 힐라 서울오픈 챌린저 테니스 대회 개최

지난 9월 17일(토)~25일(일) 및 10월 9일(일)~16일(일) 기간 동안 송파구 소재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에서 2022년 코리아오픈 및 서울오픈 테니스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두 대회 모두 국제대회로서 각 국제단체 및 대한테니스협회의 주최, 본회 및 서울시테니스협회의 주관으로 운영됐으며 코리아오픈 대회는 25개국 130명, 서울오픈은 25개국

120명의 선수단이 참여하여 우승을 향한 수준 높은 경기력을 국내 테니스 팬들에게 선사했습니다. 코리아오픈은 요시히토(일본) 선수가 남자 단식, 알렉산드르바(러시아) 선수가 여자 단식을 우승했으며, 서울오픈에서는 단식 에리 투(호주) 선수, 복식에 정윤성(의정부시청)·코바체비치(미국) 선수 조가 우승했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뉴스

### 2022 IFSC 서울 스포츠클라이밍 아시아선수권대회 개최



지난 10월 10일(월) ~ 16일(일), 7일간 잠원 한강공원 특설경기장에서 2022 IFSC 서울 스포츠클라이밍 아시아선수권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IFSC 및 대한산악연맹 주최, 본회 및 서울시산악연맹의 주관으로 운영됐으며, 10개국 25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국내 선수로는 김자민 선수와 더불어 떠오르는 암벽 여제인 서울시청 산악팀 소속 서채현 선수가 출전해 리드 및 콤바인 부문 우승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달성했습니다. 본회는 오는 2023년에도 각종 국제스포츠 대회를 유치하여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브랜드 위상 제고에 힘쓸 예정입니다.

### 2022 가족 스케이팅 교실 개최



지난 10월 15일(토)부터 23일(일)까지 4일(화)간 양천구 소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2022년 가족 스케이팅 교실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본회의 주최·주관으로 행사의

주 대상이 아이들인 만큼 스포츠안전재단 ‘안전요원 매칭서비스’와 연계한 인력 배치 및 교육 등으로 안전 대책을 강화하여 행사가 운영됐습니다. 본회는 회차당 180명씩 이루어지는 행사 성격에 따라 차수별 약 4시간의 여유있는 행사 운영시간을 확보해 동선 중복을 피해 수준별 강습 및 자유 스케이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는데, 올해 행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 행사의 완성도를 제고시킬 예정입니다.

### 자치단체간 생활체육 우호 교류 (전라남도 초청) 개최



지난 9월 16일(금)부터 18일(일)까지 2박 3일간 서울시 일원에서 2022년 자치단체간 생활체육 우호 교류 전라남도 초청 일정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1일차 문화탐방(청와대) 및 초청 만찬으로 시작하여 2일차부터는 종목별 교류 경기가 진행됐는데, 행사 주요 일정에는 이번 교류 종목인 국학기공, 농구, 수영, 족구 4개 종목의 서울시 및 전라남도 종목단체 임직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 한국체육대학교 양지인 등 2022 ISSF 카이로 라이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수상

지난 103회 전국체육대회에 서울시 소속으로 출전했던 한국체육대학교 양지인, 김민서 선수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2022 ISSF 라이플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서 25m 권총 단체 은메달 및 공기권총 단체 동메달을 수상했습니다. 두 선수는 이번 대회 성적으로 2024 파리 출전에 한 발짝 가까워졌습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뉴스

### 3년의 기다림 ‘2022 서울특별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 성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회장 오세훈)는 체육회가 주최하고 종목별 가맹단체 및 자치구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서울 장애인 생활체육인의 한마당 축제 ‘2022 서울특별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9월 20일(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5개의 동호인종목(볼링, 파크골프, 당구, 보치아, 조정)과 4개의 화합종목(대형볼릴레이, 단체릴레이, 협동바운스, 볼풀농구), 16개의 체험종목(한궁, 티볼, 스크린사격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25개의 자치구, 총 3,300여 명의 선수단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노원구가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5년 연속 종합우승이라는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고만규 수석부회장 사무처장 업무 대행 체제 돌입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회장 오세훈)는 결위 기간 동안 고만규 수석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고만규 수석부회장의 업무 대행을 통해 사무처장 공백에 따른 업무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공백을 매꿀 예정입니다. 고만규 수석부회장은 “민선 8기 오세훈 시장의 정책인 ‘약자와의 동행’에 발 맞춰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대행 기간 동안 체육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뉴스

## 가족, 친구와 즐기는 레저 캠프 '2022 서울특별시 장애인 하계캠프' 개최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회장 오세훈)는 9월 27일(화)부터 29일(목)까지 강원도 인제군 및 양구군 일원에서 '2022 서울특별시 장애인 하계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신규 체육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이번 캠프는 지체, 청각, 지적 장애인을 포함한 총 5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8륜 구동 양용차 아르고 체험, 떡 만들기 체험 등 일상에서 벗어나 야외 활동 욕구를 해소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고만규 수석부회장은 "이번 캠프 참가자들이 체험형 강습을 통해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생겨 주체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특별시 최초 통합체육 학생운동회 '2022 서울림 운동회' 개최

'2022 서울림 운동회'가 11월 5일(토) 잠실학생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후원하는 첫 운동회로 20개교 26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 예정이며, 어울림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통합체육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고만규 수석부회장은 "서울림 운동회를 통해 장애-비장애 학생 통합체육 교육의 의미와 가치가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 '제8회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마라톤대회' 개최



지난 9월 17일(토) 한강시민공원 독섬 일원에서 '제8회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마라톤대회'가 3년 만에 개최하였습니다. 독섬 수변무대를 출발하여 구리암사대교까지 한강 길을 왕복하는 이번 대회는 총 1,411명(장애인 541명, 비장애인 727명 등)이 참가하였으며 세부 종목으로는 마라톤 경쟁부문(하프코스 및 10km)과 어울림 부문(5km)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서울 스포츠

### 11+12월호를 잘 읽었나요?

서울시의 체육계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스포츠 모의고사를 통해 다시 한번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고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정답은 11+12월호에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 참여 방법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퀴즈 정답은 웹진(QR코드를 클릭하시면 바로 가기 이동) 혹은 이메일 haeung92@seoulssports.or.kr로 12월12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 전화번호, 정답 표기)



퀴즈 정답을 맞으신 분들 중 10분을 추첨하여 12월 중으로 커피 기프트콘을 발송해 드립니다.



STEP 01

1963년에 개관한 체육관으로 농구의 메카로 출발해 레슬링과 복싱, 씨름, 배구 등 국내 실내 스포츠의 성지가 된 이 체육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_ 8p.)

주관식

STEP 02

다음 중 장애학생체육페스티벌 '2022 서울림 운동회'의 정식 종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힌트\_ 20p.)

- ① 농구 ② 보치아
- ③ 빅발리볼 ④ 스포츠스타킹 ⑤ 단체줄넘기

STEP 03

남한과 북한이 1991년 일본에서 열린 세계대회 여자 단체전에 단일팀으로 출전해 우승을 차지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힌트\_ 40p.)

- ① 배드민턴 ② 탁구 ③ 양궁 ④ 펜싱 ⑤ 사격

STEP 04

서울시청 여자 축구팀 아마조네스는 2004년에 창단했습니다. 아마조네스 서포터즈는 몇 연도에 창단했을까요? (힌트\_ 49p.)

주관식

STEP 05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매 시즌 진행되는 사회공헌 캠페인은 무엇일까요? (힌트\_ 52p.)

- ① K리그 생명 나눔 캠페인 ② 경기장 일회용 컵 줄이기
- ③ 마이드림FC ④ 스포츠 기후 행동 협정 ⑤ K리그 드림어시스트

#### 지난호 정답자

- 김민 \* 전현 \* 박은 \* 장지 \* 최인 \* 조다 \* 송경 \* 이동 \* 한복 \*



# 2022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2022 Sports for All Seoul Citizens League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 #S-리그 #누구나 프로



서울시민리그에서는 누구나 프로!  
시민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잔여 결선 일정**

- 야구 11월 12일(토) ... 신월야구장
- 배구 11월 12일(토) ... 동대문구체육관
- 족구 11월 20일(일) ... 강서개화축구장
- 농구 11월 27일(일) ... 잠실학생체육관

